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2 2005. 10

통일교육

www.uniedu.go.kr





김상균 박수진 문형우 정지윤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디카사진 사이버공모

학교 및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은 항상 우리 곁에 숨쉬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 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맘으로 읽고 간직’ 할 수 있도록
여기 디카사진 한마당으로 보내주세요

- 응모부문 · Culture Zone :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와 통일 관련 이미지
· School Zone : 학교 미화 '통일란' 전체 또는 특정부분 클로즈 업 이미지
- 응모자격 · 초중고교 등 전국 각급학교 재학생
- 응모일정 · 2005년 10월 7일~ 12월5일
- 응모방법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응모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접수 주소로 응모서와 작품 프린터물 2장 우편접수
(단, 응모작품은 우편접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 kch76@unikorea.go.kr로 동시 전송)
- 응모형식 · 사진규격(품질) 300만 화소 이상(약 1Mbyte 내외), 사진파일 형태 jpg파일로 한정
- 입선특전 · 최우수 1명 400만화소급 디카 1점 및 USB 저장장치 1점
· 각 부문 우수 3명 15GBMP3 플레이어 1점씩
· 각 부문 입선작품은 본 소식지 익호에 게재 및 정기 전시전에 전시 예정
- 당선발표 · 2차 선정작은 3월 중순 본 소식지 3호 &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응모서 작성시 작품명, 작품설명, 촬영날짜 및 장소 등 기재
· 입상시 신청서 내에 있는 개인정보에 의거, 수상통지 및 경품이 발송되므로, 응모자의 이름(실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등 정확히 입력 요망
· 메일로 전송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참가자 성명.jpg' 형태로 제출
· 작품 응모자가 학생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응모서 확인란에 학부모 및 담당교사의 사인 필히 명기 요망
- 참고사항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사진규격과 파일형태 준수 요망
· 수상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통일교육원에 귀속되며 평화·통일 대국민 홍보에 활용됨
- 문의/접수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디카사진 공모 담당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우 142-715)
전화 : 02) 901-7165 홈페이지 : www.uniedu.go.kr(공지사향)

〈평화·통일 디카사진 응모 '1차 선정작'〉

1. Culture Zone 부문
김상균 박수진 정지윤
차예은 박상현
2. School Zone
김진우 박수진 백슬기 이서영
이한별 백인범 문형우

※ 본란 외 11p에 1차 선정작 게재



17



12



07

2005년 9월 30일 발행(통권 제2호) 등록번호 11-1250054-000033-09
 발행인 신연상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02)901-7160-7 Fx 02)901-7088
 주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Tel 02)901-7165
 편집위원 김재희·김학일·오일환·윤환철·정용민·허윤
 편집기획·제작 (주)경향C&L www.kup365.com 복디자인 Design B612
 ※ 본지에 실린 내용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통일교육원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일교육소식 Contents

- 02 공고-1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디카사진 공모
- 04 발간사 신연상 통일교육원 원장
- 05 권두칼럼 '서울의 잣대'와 '평양의 잣대' _ 강석승
- 06 공고-2 제1기 객원·명예기자 프로필 및 기자 2차모집
- 07 축제로 만나는 통일
- 11 평화·통일 디카 사진 공모 1차 선정작
- 12 영화속 통일 그들에게 전쟁은 한낱 '불꽃놀이' 였다 _ 장원수
- 16 6·15 5주년 평양행사 뜨거운 통일열망 아래 손에 손 잡은 남과 북
- 17 8·15 민족대축전 자주·평화·통일... 남북화해와 연대의 몸짓
- 18 통일, 맛 좀 볼까? "날래날래! 북한음식 들려 오세요" _ 송화영
- 22 통일교육 이렇게 하자 온라인 디지털세계로의 통일교육 초대 _ 심근석
- 27 열린 통일교실 '반쪽' 짜리 역사를 또 가를 수야 _ 김재희
- 30 통일교육 현장 통일, 이제 놀면서 배우자 _ 윤경아·김성학
- 33 통일 & 통일교육원 소식
- 34 평양방문기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이 사는 곳 _ 최규학
- 38 통일교육 변천사 북한의 '두 얼굴', 그 흑백논리를 넘어서서 _ 최선욱
- 39 주요 통계로 본 남북관계
- 41 개성공단사업 현황 & 남북 토막뉴스
- 42 새터민 청소년 남한적응 교육현장 하나둘학교 _ 최관
- 45 북한 전력난과 대북송전 의미 북 전력난 해소+남북경협 발전= 'Win-Win' 동력 _ 허윤
- 49 NGO's 소개 '나눔 인터내셔널' '의료·보육·교육' 3색의 희망 전령사 _ 이윤상
- 52 화제작 클로즈업 인간과 문화 변화가 '통일열쇠'
- 53 평양으로 다시 갈까 평양동무의 좌충우돌 서울살이 10년 _ 이점호
- 56 콩트 가자미의 눈물 _ 김도영
- 60 Picture & Essay 오래 오래 살아라, DMZ야 _ 황록주
- 62 여성, 통일을 말하다 명석 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다 떨듯이 _ 강영경
- 65 독자엽서
- 67 통일·남북관련 신간 안내

‘평화와 통일’ 소식을 전하는 파발꾼 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 원장 신언상

아침저녁으로 쌀렁한 기운을 느끼니 어느덧 우리 곁에도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왔나 봅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세계유일의 분단지역인 한반도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간 저 멀리 있는 것 같았던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 곁에 성큼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남북간의 회담이나 대화도 어느덧 500회를 넘어섰고 ‘금강산 관광객도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으며, 멀지 않아 개성과 백두산관광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10만 명 선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며, 남북교역규모도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년 넘게 표류하던 북핵문제도 지난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을 이끌어 냈으로써 낙관적 해결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평화의 바람이 하나의 흐름으로, 그리고 거센 물결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역량과 이를 뒷받침해줄 국민들의 통일여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열망을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통일교육 일선교사들과 통일을 위해 애쓰시



는 각 분야 통일꾼들 간에 정보와 의견교환 마당으로 지난 6월 세상에 첫선을 보인 ‘통일교육소식’^{UEM}이 이제 그 두번째 마당,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용이나 구성이 아직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이 소식지가 청소년들과 통일교육담당 교사들, 그리고 통일을 꿈꾸고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평화통일 소식을 전해주는 파발꾼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광복 후 60갑자를 맞는 올해, 가을바람으로 곡식이 익어가듯 그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서서히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북관계가 한 차원 승화·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5년 9월 가을

‘서울의 잣대’와 ‘평양의 잣대’

지금 남북관계는 분단 60년에 이르는 세월동안 미처 겪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TV나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체들은 앞 다투어 남북관계와 관련된 장면이나 기사를 ‘특집’으로 장식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북한 땅’을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는 70년대의 남북공동성명과 80년대의 7·7선언, 90년대의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6·15공동선언에 이어 ‘제2의 6·15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1년여 교착국면에 처해 있던 ‘6자회담’도 베이징에서 다시 돛을 올리고, ‘8·15남북공동행사’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민간차원의 행사도 그 수를 다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 보도나 기사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동족이자, 언젠가는 통일을 함께 일구어나갈 대상’인 북한의 실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예를 들어 ‘이적성’ 판단문제로 개폐논의가 부분적으로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어느 전문가는 이 법에 상응하는 북한의 법(당규약이나 형법 등)과 함께 개·폐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명실공한 ‘법치주의국가’인데 반해 북한을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치체제로 볼 수 있겠는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그 주 대상인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가 아무리 홍수를 이루어도 북한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우리 식대로 이해하며, 나름대로 해석하려 한다면, 큰 우를 범하거나 실패를 자초할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에서 필자는 얼핏 듣기에는 다소 생소할지 모

를 ‘서울의 잣대’와 ‘평양의 잣대’에 대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잣대^{Criteria}로 재느냐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그 진위^{Truth}가 어떠한 간에 벌써 10여년 넘게 계속하여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해 그들은 “굶어 죽으나, 전쟁 때문에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자포자기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이관사관^{International Law} 식으로 받아들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전쟁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 “미제의 군화발 밑에 짓밟혀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해방시켜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한다. 물론 당-정-군의 고위직에 있거나 남북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한사회가 아직도 후진상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 경우 전자^{North}가 ‘서울의 잣대’이며, 후자^{South}가 바로 ‘평양의 잣대’인 것이다.

결국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와 관련하여 ‘제2의 6·15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분단으로 인해 직·간접으로 파생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인식의 겹^{Gap}을 좁혀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이점을 감안하고 북한을 직시^{Realistic}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변영정책도 그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변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강석승 行博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과장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1기 'UEM' 객원 및 명예기자 2차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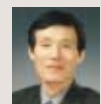
통일교육소식지 'UEM'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는 당신의 머리와 눈, 그리고 귀를 기다립니다

- | | |
|--|--|
| 모집부문
(객원기자) 인터뷰 및 스크립터,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명예기자) 일상 속 평화와 통일관련 소재 발굴 및 취재 | <2차 면접전형>
1차 합격 개별통보 후 추후 면접 전형일 홈페이지(www.uniedu.co.kr) 공지 및 개별통보 |
| 응시자격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와 대학생·일반인
(성별, 학력, 나이 상관없이 해당부문 관심 있는 자 추천도 가능) | <모집마감>
2005년 11월 30일
<접수 및 문의>
assa@khan.co.kr로 'UEM 기자 응시' 제목으로 접수 및 문의
*응모 의사가 있는 분들 중 UEM 창간호 및 2호가 필요하신분은 위 메일로 받을 주소와 성명, 연락처를 보내 주세요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공동: 일반서식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객원기자: 통일 또는 평화(국내 또는 국제) 관련 칼럼 1건(200자 원고지 7장 내외)
*아트 포터 및 취재촬영 응시자는 통일 또는 평화 이미지 사진파일 2점 제출
명예기자: 평화와 통일 관련 소재 또는 관심영역 기사(200자 원고지 5장 내외) | 지원 및 혜택
· 기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 지원 및 기념품 제공
· 해당부문 활동경력 인정서 발급 |

1차선발 UEM 객원 및 명예기자 프로필

* 제1차 객원·명예기자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객원기자>



조휘제(56)
동국대 북한학과 (박)
서서울생활과학고 교사



이점호(31)
고려대 국제대학원(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과장



최관(24)
동국대 경찰행정학(석)
경찰뉴스신문 편집국 주간, 국민일보 프리랜서



최우진(24)
동국대 사회학과 4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활동

<명예기자>



송화영(23)
통일교육문화원 교육담당 간사



이국희(21)
선문대 국제경제학과 2년(재)



김지예(20)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2년(재)



이현순(17)
서서울생활과학고 2년(재)
교내 통일연구반 차장

<아트 포터>



양호근(21)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3년(재)



오세호(19)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2년(재)



꼬마 아이들도
'똑딱똑딱' 하면 지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우리 통일을 생각해봐요

- 세계평화축전 _ 8p
- 통일문화페스티벌 _ 9p
- 여명의 땅 DMZ+ _ 10p


한반도 허리 '분단현장'에서의 '화해의 메시지'



통일, 이제 문화로 느낀다




통일교육원 주최 '통일문화페스티벌'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광복60주년 기념 '통일문화페스티벌'을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통일교육원(서울 강북구 수유6동) 원내 일대에서 개최했다. '영화로 하나되는 즐거움', '설치미술전', '통일염원 학생작품전', '통일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주제행사를 통해 '딱딱하고 재미없는 통일교육이 아닌 신바람 나고 재미있는 통일교육'의 모델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통일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주최 '세계평화축전'

우리 모두의 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 우리 모두의 아이들... 평화가 되레 의미있게 다가오는 곳 DMZ. 이곳에선 중동 분쟁 당사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비롯, 세계 17개국 17개 문화예술 및 학술단체에서 110명과 국내 75개 단체 790명 등 총 1,000명의 지구촌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42일간의 '화해의 축제' (8월 1일-9월 11일)를 벌였다. 세계적인 뮤지션 공연, 고르바초프 등 명사들 강연회(공연 100회, 전시 2회, 학술대회 5회, 놀이체험 15개)를 통해 DMZ를 넘어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인이 함께 한 평화 대제전이었다. 





평화·생명·미래로 다시 태어나는 '망각의 땅'

강원도 주최 '여명의 땅 DMZ+'

올해 강원도는 DMZ(비무장지대)의 환경 · 관광 ·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DMZ 60년 사업'으로 '여명의 땅(Dawning Magni-Zone) DMZ+' 행사를 지난 6월23일 국제포럼(서울 힐튼호텔)을 시작으로 'DMZ 평화생명 콘서트'(철원 노동당사 앞, 8월3일)에 이어 10월7일 러시아 하바로프스크 오페라극장에서의 오페라 '메밀꽃 필 무렵'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페스티벌 레퍼터리로 진행하였다.

Culture Zone



1



2



3

- 1. 박윤선
- 2. 차예은
- 3. 박상현

마음은 하나 '통일' 그날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청소년 평화 · 통일 디카사진 공모 1차 선정

School Zone



1



3



2



4



5

- 1. 김진우 2. 백솔기 3. 이한별 4. 백인범 5. 이서영
- ※본란 외에도 2p에 선정작 게재

그들에게 전쟁은 한날 '불꽃놀이'였다

남북소재의 근작 영화속 이데올로기 탈출

1989년 작가 황석영이 북한을 다녀와 이렇게 말했다. '전쟁광들'이나 '뿔 달린 빨간악마들' 소굴이 아니었던 것. 북한은 그만큼 우리에게 멀고도 달한 공간이었다. 동토³의 땅으로 판박이된 기억의 잔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6년,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금강산과 개성이 개방되고, 우리의 쌀과 비료가 북녘의 비포장도로를 달리지만 여전히 북한은 더 알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이다.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선을 넘어 서면 실정법 위반자로 처벌을 받는 곳. 그런 북한에 대한 관심이 바뀌고 있다. 그건 정치적 논리 이전에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더 강력한 엔진 출력을 낸다.

남과 북, 이젠 더이상 적이 아니다

최근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영화 시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위협하거나 모험적인 소재가 아니다. 아니, 아닌 정도가 아

니라 '대박의 법칙' 그 첫머리에 '남북문제'를 대문짝하게 아로 새긴다. '공동경비구역 JSA'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 '친구' '웰컴 투 동막골' 등 한국영화 상위 6위 가운데 '친구'를 제외한 다섯 편이 모두 남북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들 영화에 대한 평가도 제각각이다. '민족화합에 대한 대리체험의 카타르시스'라는 칭찬에서 '지나친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씌워져 반미·친북정서를 깬 돈벌이 영화'라는 편견에 이르기까지... 여하튼 스크린에서는 남북분단이 화두다. '간 큰 가족' '친군' '웰컴 투 동막골' '어떤 나라' 등 과거와 다른 북한의 실체에 접근하는 영화들이 한국 스크린을 누빈다.

통일과 분단이 충돌하며 자아내는 웃음

'간 큰 가족'은 통일에 대한 남한 사람의 의식과 현실을 보여준다. 영화는 북에 가족을 둔 노인의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거짓 통일을 꾸미는 코미디다. 사기극의 판이 점점 커지다가 탄로 나

올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사망 30주년이 되는 이만희 감독의 특별 회고전이 열린다. 비록 이번 영화제에서는 빠졌지만 김열로 인해 관객과 만나지 못했던 작품 중에는 '7인의 여포로'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반공법에 걸려 감독이 고초를 겪었는데, 김열 이유가 북한군 군복이 남한군인 것보다 좋아 보인다는 이유였다. 북한을 탈인격화 된 절대악으로 묘사했던 1960~70년대 반공영화에서 가능했던 일. 최근에는 서슬퍼런 김열의 칼부림도, 정권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사고가 유연해졌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정서도 부드러워졌다.

고, 진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 영화는 통일이란 '거짓된 내일'로 오늘의 분단한국을 비튼다. 소망(통일)과 현실(분단)이 충돌하며 웃음을 빚어낸다. 통일이란 부담스런 소재를 가볍게 건드리면서도 알짜한 여운을 남긴다.

영화 '친군'은 핵무기를 놓고 남북한 군인이 다투다 혜성이 일으킨 교란으로 1572년의 조선에 떨어져 28살의 평범한 이순신을 만난다는 이야기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소재지만, 이면에는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한의 괴리와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 집에 살게 된 남북한 군인들은 마당에 금을 긋고 서로 티격태격한다. 현재의 분단 상황과 일견 비교되는 상황. 그들은 밥을 먹을 때도 핵무기를 찾을 때도 끼리끼리 뭉쳐 다닌다. 보다 못한 이순신은 "적도 아닌데 한 집에 살면서 왜 서로 으르렁대느냐"고 꾸짖는다. 그 말은 "결국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민족인데 지금은 왜 그래?"라며 현재의 우리에게 되묻는 셈이다. 결국 남북한 군인들은 힘을 합쳐 이민족에게 핍박

받는 마을을 구해낸다. 진정 손을 잡아야 할 대상과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웰컴 투 동막골'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소박함과 천진함으로 가득한 동막골. 이곳으로 연합군 병사와 낙오한 인민군, 그리고 자군 병력에서 탈영한 국군 일행이 찾아든다. 초긴장 상태였던 이들은 마을 사람들과 밭을 갈고 밧돼지도 잡고 강냉이도 튀겨 먹고 풀썰매를 타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그리고 연합군의 폭격으로부터 마을과 주민을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 영화에서도 남과 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판타지 속에 녹아든 현실세계

'동막골'은 현실에 없는 이상향이다. 거짓이거나 꿈이다.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채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따고, 알콩달콩 자기들끼리 자연을 껴안고 사는 마을은 현실엔 없다. 더구





나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기만 할 수는 없고, 행복하기만 한 것 또한 아닐진대.

‘동막골’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세속의 언어로 접수할 수 없는 철저한 판타지의 세계다. 골치 아픈 현실은 거리낌 없이 판타지로 들이밀고 표현 수단에 있어서는 웃음 코드를 전면내 세운다. 남과 북의 병사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대결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말한다. 달관이나 관조마저 초월하는, 그리하여 이데올로기적 차이마저 웃음으로 치환한다.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느냐는 인민군 장교의 물음에 “뭘 마이 먹어야 돼”라고 말하는 촌장의 백점짜리(?) 대꾸는 잔뜩 똥가를 기대했던 공기를 깨뜨리고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버무린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남과 북의 병사들의 모습을 희화화시킴으로써 공존의 묘미를 읊조린다.

하지만 동막골은 분단이라는 이면 뒤에 지금의 우리네 현실 공간을 내포하기도 한다. 동막골은 이기심과 헛된 욕망으로 넘쳐나는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넘어서고 싶은 소시민 또는 낙약한 인간의 구원이 담겨 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순수한 사람들을 만날 것 같고, 그들과 같이 숨쉬고 생활하면 속세의 영혼마저 정화될 것 같은 아늑한 느낌을 받는다. 이 정서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꽃놀이에 불과한 마지막 전쟁 장면에서도 마을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심리적 공감대와 맞닿아 있다. 이런 현실과 가상세계의 경계선 위에서 조화를 이루는 정

서는 관객에게 호소력을 지니면서 판타지 효과로 현실을 덮는 마술을 발휘한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북녘 사람들

북한을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본 영화는 영국인 감독 대니얼 고든(Daniel Gordon)의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가 아닐까 싶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러나 잘 알 수 없었던 북한의 실체를 생생하고도 가감 없이 펼쳐 보인다. 다큐 속 북한은 친진하고 순정적인 인간네들이 꾸러가는, 그냥 우리처럼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과 이웃들 하고 살아가는 한국국이다.

북한 최고의 행사인 전승기념일 매스게임에 참여하게 된 현순(13살)과 송연(11살). 체조연습을 ‘땡땡이’를 친 현순은 엄마로부터 잔소리를 듣는다. 송연은 숙제하기가 싫어 매일 저녁마다 골머리를 앓고, 언니가 군대에 간 뒤 “내 방이 생겨서 무척 좋다”고 기뻐한다. 이들은 오로지 ‘장군님’을 향한 끝없는 존경의 눈빛으로 힘든 훈련을 견뎌낸다.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녀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평양. 사는 공간만 다르다는 것뿐 남한의 또래 소녀들과 다를 것이 없다. 휴일 대동강변으로 봄나들이를 가고, 아빠와 딸이 노래방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다. 중산층 가정을 모델로 삼았지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무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영화는 외국인 감독이 직접 평양에서 찍었다는 것 외에도 곳

곳에서 우리 인식의 오류와 편견을 무너뜨린다. 발전 시설이 부족해 특하면 정전이 되고 밤이면 어둠에 잠기는 것이 평양의 일상적인 모습이라지만 정작 그 현장을 보여준 영화는 없었다. ‘어떤 나라’엔 그 모습이 있다. 송연의 어머니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불어 닥친 식량부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도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다. 딸의 생일에 강냉이 죽을 쑤어서 생일인 아이만 한 그릇을 주고 나머지는 반 그릇씩 먹었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당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고난의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받아들이며 제국주의의 경제붕쇄에 더욱 중요성을 키운다. 현실이라곤 하지만 생경스럽고 이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새로운 균형을 함께 해주는 ‘어떤 나라’

감독은 매스게임에 위한 혹독한 훈련과 화려한 퍼포먼스, 그것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생활의 편린들을 4개월 이상 담으면서 “통역관과 가이드는 있었지만 검열과 제재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이 덕분인지 영화속 인터뷰들은 북한에 대해 가해졌던 증명되지 않은 편견에 대해 새로운 균형을 함께 해주는 미덕으로 자리 잡는다.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썩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까놓고 얘기하자면, 현재의 북한체제는 대명천지 지구상에서 인간이 하나의 존재로서 자유롭게 누릴 생존권이 제한된 사회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쪽을 도와 바뀌는 사이에 우리도 변하면서 평화적



‘어떤 나라’ 감독 대니얼 고든

2001년부터 독립제작사 Very Much So Production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Darren Gough’ s Cricket Academy’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아카데미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 2003년 영화 데뷔작인 북한 소재 ‘천리마축구단’으로 왕립TV협회와 세벌영화제, 시애틀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고 영국독립영화상, 그리어슨상 등에 노미네이트됐다. ‘천리마축구단’은 1966년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누르고 8강에 올라 세계 축구사에 일대 이변을 일으킨 북한 축구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어떤 나라’는 평양국제영화제 수상을 비롯 크라이베카, 암스테르담, 멜버른, 시드니, 싱가포르, 부산영화제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북한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로 하나가 될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분단에 의해 생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슬픈 군상들의 희비극을 웃음으로 치환하는 영화의 매력에 잠시나마 현실을 잊는다면 그 역시 판타지일까?👁️



장원수 영화전문 기자 · 미디어인 뉴스팀장
남북문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인 영화소재라면서도 민족분단이라는 기막힌 소재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뜨거운 통일열망 아래 손에 손 잡은 남과 북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지난 6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민간 및 정부대표 340명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참가했다. 이번 '6·15 축전'은 북측 행사에 처음으로 남측 민간대표단(대표단 단장: 백낙청 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상임대표)과 정부대표단(단장: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함께 참가했다. 14일 오후 '6·15축전 개막식'에 이어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남북 당국대표단은 별도로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가졌으며 남·북, 해외 민간대표단은 4.25 문화회관에서 6,000여명의 평양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통일대회'를 열고 5개항의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했다. 한편 6월 17일,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10주기 조문불허 등으로 10개월 이상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복원을 의미하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졌다. ☺



자주·평화·통일... 남북화해와 연대의 몸짓

광복60돌 기념 8·15 민족대축전

남북 및 해외대표 820여명이 참가한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지난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과 고양시 등지에서 열렸다.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 대남분야 및 내각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북측 당국대표단은 행사기간 중 분단 이후 최초로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 행보로서 남북관계의 괄목할만한 변화를 실증하였다. 한편 15일 '8·15 민족대회' 본행사(서울 장충체육관) 참석후 민간대표단은 서대문형무소 참관 및 체육·오락 행사등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16일 오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된 폐막식에서 김정호 북측 준비부위원장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를 통해 60년간의 분단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며 "이 땅에 전쟁이 나면 그 피해자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뿐"임을 강조, 민족공조로 평화를 수호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날래날래! 북한음식 들러 오세요”

북한음식점 프랜차이즈 내달오픈 새터민 정수반씨

올해초 대동강 옛말을 판 북한음식점 '달가람' 운영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새터민 정수반 씨. KBS에 여섯 번, MBC에 세 번, 경제TV에 두 번, 미국 CNN TV에 한 번 등 TV화면 두루 섭렵에 경향신문, 국민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물론 미국 인터내셔널트리뷴, 일본 산케이신문 등 해외 신문지상에까지 클로즈 업 되었던 주인공. 그런 그가 올 5월 돌연 잘나가던 '달가람' 을 접고 지금 대형사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달려가 보았다

만 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나타난 160cm 가량 작은 키의 정수반 씨. 처음 대하는 나를 환한 웃음으로 대해주는 그를 보니 여타 방송이나 신문기사에서 느낀 그대로 'Cool' 해서 좋았다.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달가람' 문은 왜 닫았는가라는 첫 질문에 “통일되면 ‘평양 지사장 정수반’으로 북한에 꼭 갈 겁니다”라며 내달 새롭게 개업할 북한 음식점 상호가 '날래날래' 라면서 벌써부터 홍보마케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제 남한사람 뽑치는 사업가가 다 되셨네. ㅋㅋㅋ’

송화영 기자(송): 어느 신문기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화력이 매우 좋은 것으로 묘사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본인성격 중 어느 면이 남한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요?

정수반 씨(정): 조금 쑥스러운 질문이네요. 그냥 저는 제 삶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자' '스스로 열심히 자는 하늘도 돕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자' ... 뭐 이런 것이죠. 이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겠다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나름대로 남한생활에 잘 적응, 정착하고 있습니다.

송: 2000년 남한에 정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더군요. 시나리오 작업, 결혼정보회사 운영, 탈북자 신문사업까지... 어떻게 이런 많은 사업아이템을 생각하시고 또 실천에 옮기셨나요?

정: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해야만 했기에 한 것입니다. 돈 한 푼 없고 인맥도 없고 가방 끈마저 짧은 제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보니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남한에서 나서 3, 40년씩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맨 주먹으로 한국에 온 새터민으로서 성공하려면 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남들과는 차별화되고 이슈가 되는 일을 해야만 뜨고, 그래야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9월 4일 창업한 해남발명회사를 시작으로 많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송: 현재 '북한음식연구소' 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요?

정: '북한음식연구소' 는 북한식 분식전문점 '달가람' 을 하면서 알게 된 문제해결 방식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북한음식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북한음식을 제대로 연구하고 알리는 일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해남발명회사의 부설기관으로 본 연구소를 열게 되었지요. 통일은 현재진행형 사업이며 서울에 앉아서 평양음식을 주문해 먹는 날도 머지않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 되다보면 남북 음식·외식분야의 교류도 곧 진행되겠죠. 이때 저희 연구소가 남북외식업교류의 창구로, 선도자로 통일 후 북한에 진출하는 남한 외식업체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리라는 비전을 갖고 있지요.

송: 북한음식은 남한음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달가람' 에 이어 '날래날래' 까지 북한음식을 사업아이템으로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정: 같은 민족이다보니 남쪽이나 북쪽이나 맵게 먹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남한음식이 달콤새콤하고 각종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북한음식은 담백하며 음식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북한음식사업을 택한 이유는 주위 분들의 권유가 많이 작용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음식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그러자 결과적으로 함께 북한음식사업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고를 오래전부터 받아왔거든요.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북한음식점으로는 1호였던 '달가람' 에 대해 소개 좀 해주세요.

정: 올 4월 이화여대 앞 상권에 오픈했던 북한식 분식전문점 '달가람' 은 새터민이 순수 자신의 아이디어로 투자를 유치, 창업한 사례 1호입니다. 과거 정부지원을 받거나 자신의 자본으로 창업을 한 새터민은 있었지만 '달가람' 은 새터민의 사업아이템에 남한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이뤄낸 창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종 창업박람회 참가 북한음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창업컨설팅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자신의 사업아이템에 대해 알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창업교육 이수와 사업 관련 각종 지식을 독학으로 꾸준히 익혔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명의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중 한 사람과 인연이 닿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가람' 사업이 중도 정지된 것은 투자자와의 계약상 트러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 지난번보다 5배 정도 더 크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한 셈이죠.(웃음)

송: '달가람' 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직접 사업 현장에서 남한 사람들을 접해보니 북한사람 식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단가요?



정: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면 새터민도 인정해주고 돈까지 투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의 실천으로 새터민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새터민도 당당히 남한 기업가들과 자웅을 겨루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면서 메뉴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남한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북한음식을 남한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음식을 철저하게 한국화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남한사람들의 입맛이 세계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자극적인 각종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담백한 북한음식은 발을 붙이기 힘들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쪽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식점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맛'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 '달가람'은 북한의 문화·웰빙·테이크아웃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결합된 음식점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요소가 이대생들 등 젊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어필 되었다고 보는지요?

정: 이대 앞 상권은 청춘의 거리, 젊음의 거리, 유행의 거리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필하려면 보통의, 기존의 메뉴로는 승산이 없죠. 그래서 '달가람' 영업 모토를 '북한음식과 함께 북한문화를 팔자'라고 정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실내 인테리어에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북한 분위기를 살리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이 젊은 이대생들의 눈길을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경쟁적인 취재열기가 홍보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구요. '달가람'에서 얻은 제 나름의 성과라면 첫째, 새터민도 하면 된다는 것이고 둘째, 장사를 직접 해 실천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며, 셋째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송: 특별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재미있었던 일이 있다면?

정: 일곱 번 오셔서 두부밥만 드시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28세의 회사원 남자분인데 두부밥 마니아가 되신 거죠. 그리고 가맹점을 하겠다고 찾아온 분이 네 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 중 한 분이 지금 저와 새롭게 북한식 분식점, 북한식 정식집을 곧 시작하게 될거구요. 제일 재미있는 일화는 일흔 넘으신 할머니 두 분이 찾아와 '철산미인밥'을 드시면서 '미인밥 먹고 미인이 되겠다'고 하셔서 손님 앞에서 배꼽 나오게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홍보전단지 돌리려 하다가 이대 정문 앞에서 아가씨들에게 면박을 심하게 당한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되었죠.

송: 남한 사람들도, 더구나 불경기인 요즘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닐텐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나요?

정: 사업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간단치 않다는 것이었죠. 자그마한 구멍가게 하나도 대기업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북한이나 (탈북해서) 중국에서 난민으로 생활할 때보다 한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더 힘들습니다. 그만큼 적응이 어렵고 특히 사업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지요. 피나는 노력과 끝없는 학습, 그리고 자신에 대한 냉정한 절제를 요구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새터민들을 무시하는 남한사람들을 만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 왔고 지금도 견디고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부단히 자기개발을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북한의 가족들과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천국에 살고 있는 천

사이며, 통일 후 고향에 뿔뿔하게 돌아가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송: 달가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업하게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요?

정: 이번에 개업하는 음식점도 북한식 분식전문점입니다. 단, 지난번 '달가람'과 다른 점은 분식메뉴가 6종에서 42종으로 늘어난 것, 북한식 식자재를 북한에서 납품받아 음식을 만든다는 것, 더 큰 매장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시작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 가맹점 2개를 거의 동시에 오픈 한다는 것 등입니다. 1개월 이내에 같은 상호의 가게가 서울시내에 3곳 이상 생깁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음식점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진 소원은 음식점이 번창하여 북한에 지사를 낼 때, 제가 지사장으로 발령받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서에 이 내용을 명백하게 삽입하였고 또한 수익배분 문제도 지난번 때와는 달리 정확하게 명기하였습니다.(웃음) '평양지사장-정수반'이라는 문장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송: 개업하게 되는 음식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그리고 특별히 그 음식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 평양냉면·함흥만두·해주비빔밥 등 사실 남한에 와서 먹어본 북한음식은 전혀 북한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식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며 음식 개발을 남한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식 식자재를 적극 이용합니다. 물론 지난번 '달가람' 때 호평을 받은 두부

밥·맹알밥 등과 함께 산채밥·모란봉냉면·강계도토리찬묵·만두밥라면 등이 주요 메뉴들입니다. 이 메뉴들을 추천하는 이유는 맛있고 값이 싸고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송: 끝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 새로 오픈하는 저의 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싶죠. 그리고 새터민들을 만나면 진심으로 대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진심이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감정이지요. 그리고 새터민 동료들에게는 '열심히, 성실히, 지혜롭게 살면 성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어느 사회든 우선 열심히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도 열심히 살아야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새터민들은 북한체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지혜롭지 못하면 생활에서 실패하거나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남한사회를 빨리 알아야 하고 전문분야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시대의 흐름과 사람들의 기호를 잘 파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실, 지혜, 이 3가지를 꼭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날래날래' 오셔서 맛있는 북한음식 많이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

- 글 송화영 통일교육소식 명예기자
- 사진 오세호 통일교육소식 명예기자

개점박두!! 북한 전문음식점 '날래날래'

'달가람'에서는 6종에 불과하던 메뉴를 42종으로 대폭 늘려 선보이는 북한분식 전문점 '날래날래' 본점(1호, 이대앞)이 내달 초 개점에 이어 2호점은 신촌에, 3호점은 홍대에 1개월 사이 연이어 오픈할 예정이다

온라인 디지털세계로의
통일교육 초대

'N세대 대화창구로 커뮤니티 통일수업' 체험기

얼마 전 누군가가 '요즘 아이들의 디지털화(의 폐단)를 막기 위해 예화 들려주기, 독서하기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반문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예화나 독서 그 자체가 가치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디지털화가 걱정이라면 (그 걱정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아이들의 디지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준거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 대꾸하고 싶었습니다.

충분한 첨단 e-러닝 환경에 통일수업 버전 업 욕심

작년에 새로 부임한 장산중학교는 충분한 첨단 e-러닝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과든지 마음만 먹으면 1인 1PC 멀티미디어실이나 그룹 멀티미디어실에서의 수업이 항상 가능하며, 교실에서도 모듈별 e-러닝이 가능하도록 노트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욕심이 생기더군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용해온 '소집단 대화학습'을 '소집단 웹 토론학습'으로, 대화를 채팅으로, 모듈 노트를 웹게시판·자료실로, 개인 통일작품집을 블로그



작품집으로 바뀌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N세대의 대화 양식을 제가 가장 애착하는 통일수업에 초대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중학교 통일단원은 2학년 2학기말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는 1998년부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또 몇 학년을 맡든 매년 도덕시간에 통일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시점에 집중되는 그런 일회성 통일교육이 아니라, 매월 두 차례 정도 통일수업을 하고, 수업과 수업 사이의 간격엔 수행평가나 과제 등의 방법으로 마치 도덕 속의 또 다른 한 작은 교과를 공부하듯이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은 통일밖에 모르세요?” “선생님! 북에 이산가족이 있지요?” 심지어 “선생님, 북한으로 가 버리세요!”와 같은 원성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통일수업만 하면 수업 전에 과제가 나가고, 모둠 활동이 수행평가에 반영되고, 토론과 발표가 뒤따르니 부담스럽고 귀찮을 때가 많았겠지요. 그러나 학년을 마칠 때쯤이면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포트폴리오(통일탐구장)를 보면서 성취감을 누리게 되죠. 이쯤되면 또 온 없이(?) 저를 만나 학교 홈페이지에 푸념을 늘어놓는

후배들에게 점잖게 “우리도 다~했느니라. 하다보면 재미도 붙는 데이~”라는 점잖은 댓글도 달아줍니다.

‘북한지리익히기’ 등 온라인 게임도 심분 활용

올해는 중학교 3학년 전반 도덕을 가르치지만, 같은 학년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맡아 ‘통일교육’을 맡껏 할 수가 있어서 신이 납니다. 덕분에 도덕시간에 아이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푸념은 거의 사라졌지만,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도 수행평가에 반영되지도 않는 창의적 재량활동 통일교육이어서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통일교육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산중학교의 첨단 e-러닝 환경은 이러한 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통일수업에 활용할 만한 e-러닝(ICT 활용)전략에는 웹 자원, 웹토론, 웹협동, 웹출판, 그림판 및 웹게시판 등의 활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웹토론 활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웹토론 활용수업을 해보니, 교실 밖의 사람들과 온라인 연결망을 활용하는 웹협동활용을 제외한 다른 전략들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웹토론



6월 평화통일의 날 행사 중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흙 장승만들기 모듬' 행사

의 배경지식 획득을 위해 웹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웹토론의 결과물은 웹출판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업 후 활동으로 수업경험을 표현하거나, 실천의지 강화를 위해 서사적 글쓰기나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그림판 및 웹게시판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개설한 자료실과 링크한 대화방 등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온라인 게임도 활용했습니다. 특히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북한지리익히기’는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먼저 70점 이상인 사람 선착순 15명에게 사탕을 준다. 70점 이상인 사람이 다시 90점 이상 맞으면 사탕을 2개 더 준다”라고 했죠. 사실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예쁜 봉지를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사탕이 든 봉지요. 사탕 한 개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참 좋아합니다.

또한 제가 평소에 TV 영상물 중에 유익한 것들을 녹화해 두었다가 방학 중에 수업에 적합하도록 편집하는 일을 200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편집 분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쌓인 편집 동영상 CD는 200여장 됩니다. 영상세대인 학생들에게 동영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영상의 큰 맹점 중 하나는 아이들이 표면적 이미지에 끌리다보니 맥락읽기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화면정지하고 설명하기’ ‘시청 후 웹토론 하기’ ‘느낀 점을 그림판으로 표현하기’ 등을 해 보게 했습니다. 그냥 시청만으로 수업을 끝내게 되면, 학생들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고서 마지막 장면인 주인공들이 죽어가는 웅단폭격 장면이 멋있다고 말하는 등, 학습의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생 자신의 블로그내 ‘통일작품집’ 개인소장

학생들의 산출물은 모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게 하고, 특히 잘 된 작품이거나 댓글이 많이 오른 작품들은 따로 저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통일교육이 끝나면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블로그 통일작품집을 하나씩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수업을 연중 계속하는 것은



Back Forward Stop Refresh Home Favicon Print Mail

Live Home Page Apple iTools Apple Support http://yrbk.usbhd.co.kr 필자 - 김국훈 1회 네이버 - 지식백과 장려하는 검색, 네이버 http://vsn.usbhd.co.kr

가래그림그리기 모듈의 활동

올해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교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길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을 활용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 개별학습과 협동적 집단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통일교육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1인 1PC 환경하의 웹토론에서는 웹자원을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 집니다. '민족분단의 기원'이라는 동영상 시청 후 웹토론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이미 개별적으로 '우리 민족의 분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조사해보라'는 과제를 정보 검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자원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학생 산출물들을 비교하면서 활용된 정보의 양과 질을 함께 평가해 가며 가치관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을 보는 올바른 태도나 건전한 통일외식 함양은 교사의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깨달아갈 때 참된 지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웹토론을 하다보면 학생들의 평소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이 노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티켓을

지도하는 부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대화의 방식을 넘어서서 중요한 생활양식, 문화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특히 e-러닝 중심으로 주로 1인 1PC의 멀티미디어실에서 하는 수업은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날 무렵엔 저에게도 괜찮은 '통일교육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 하나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철기시대에는 철기가 도구이듯이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멀티미디어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교육과 멀티미디어의 만남,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을 많은 통일교육 교사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근석 경북 경산시 장산중학교 교사
KBS 등과 통일교육 CD 영상으로 여는 통일교육 공동제작과 '바위술의 통일교육마당' (user.chollian.net/~baweesol)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그는 오는 10월 창작 통일극 3개의 남북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지난 1학기 수행평가로 학생들이 만든 '통일신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린 아름다운 '통일'을 만났을 때, 새삼 보람을 느꼈다고...



여성의 눈으로 본 건국신화 이야기 '반쪽' 짜리 역사를 또 가를 수야

1970년대 남쪽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격상시킨 인물이 충무공이었다면 같은 시기 북한에선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국가 차원의 격상작업을 통해 영웅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부터 동명왕의 능으로 전해져 오던 유적을 1974년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한 결과 그 앞으로 120m 되는 곳에 고구려 시대의 절터가 드러나고, 엄청난 규모와 축조상 특성 및 벽화 내용 등이 발견되어 이를 근거로 5세기 초에 옮겨 만든 동명왕의 능(28p 사진)으로 단정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고구려의 능 가운데 가장 호사스럽게 성역화된 동명왕릉은 현재는 평양시에 편입된 옛 중화군 진파리에서 늪মন한 위용을 뽐내며 참배객을 맞고 있는데, 이를 안내하는 여자가이드의 말솜씨가 어찌나 능숙한지 현지방문 했던 제 친구 말을 빌리자면 거의 한 편의 현란한 공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이드가 방문객에게 던진 질문 하나. 고구려의 시조인 고주몽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의 신분의 남자에게겐 대체로 어머니는 별로 아닌감? 남쪽에서 온 남성 나라들, 이구동성으로 '아버지'라고 답했는데 오



광복 60주년 행사에 참석차 북에서 온 대표단이 안압지와 첨성대, 석굴암과 불국사 등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둘러보는 뉴스화면을 보니 더욱 더 그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명왕릉의 그 여자가이드는 주변의 소나무가 원래 제주도에서 온 나무라며 죽기 전에 꼭 한 번 그 아름다운 섬에 가보기를 꿈꾼다고 말했답니다

직 제 친구만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독야청청 '어머니!' 라고 답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가이드 왈, "동명왕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답니다!" 라고 했더라는군요.

고구려의 어머니 유화부인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어머니는 고구려의 국모로 추앙받던 유화부인입니다.

만주 지림과 헤이룽 강 사이를 흐르는 송화강 기슭에 하백이란 이름의 부족장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 셋이 물놀이를 나갔다 자칭 천제의 아들 해모수를 만납니다. 바람둥이 해모수는 이들을 유인해 자기 집에 데려가 음주가무를 베풀다 유화에게 아이를 잉태케 한 후 종적을 감추니, 화가 난 아버지 하백은 딸 유화를 내쫓아버립니다. 절망한 유화는 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만 지나가던 어부가 살려내어 동부여의 금와왕에게 데려가자 그녀의 빼어난 자태에 반한 왕은 유화를 후궁으로 삼지요.

얼마 후 유화는 간혀 있는 방속 창문에 햇살이 비치는 것이 싫어 자주 피하지만 햇살은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고... 결국 거대한 알을 낳지요. 금와왕은 이 알을 동물에게 먹으라고 주지만 소나 말은 피해가고 새들은 날개로 따뜻하게 감싸줘 할 수 없이 다시 유화에게 돌려주자 그녀가 알을 품은 지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나니, 그가 바로 고구려 시조인 주몽입니다. 주몽은 어려서부터 대단히 용맹하고 활숨씨가 뛰어나 금와왕을 비롯해 그의 일곱 아들이 호시탐탐 경계하며 그 목숨을 노리는지라, 어머니 유화

부인은 막 장가간 아들을 재촉해서 세 명의 심복과 함께 이웃나라 졸본부여로 피신을 시킵니다.

아들 주몽이 길을 떠난 후 곧 태어난 유화부인의 손주 유리는 씩씩하게 자라며 할머니를 위로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뜰 때까지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시조가 된 아들 덕에 유화부인은 불멸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의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앙을 받았습니다.

고구려는 동명왕 14년(기원전 24년) 8월, 유화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그녀의 사당을 짓고, 해마다 삼진날이면 사냥한 멧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데 이 제사에서 하늘의 신은 주몽이고 산천의 신은 그의 모친 유화부인이었습니다.

백제의 어머니 소서노

주몽이 알에서 깨어난 때보다 십년 남짓 먼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천 년쯤 전 서라벌의 자궁 남산에서는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알껍데기를 박차고 나온 바로 그 무렵입니다. 만주의 라오닝성에서 태어난 '소서노' (옆 그림)라는 한 계집아이는 이후 큰일을 도모하라는 하늘의 뜻인지 비류라는 사내에 하나를 두고 청상과부로



스슬히 살아갈 적에 그녀 앞에 불쑥 나타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고주몽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신하 세 명을 데리고 이웃나라로 도망쳐온 별 볼일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주몽은 자기가 천제의 아들과 물의 신 하백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귀하신 몸임을 만나는 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당당히 말하는가 하면 활쏘기 솜씨가 백발백중 만주 최고의 궁사로 이름을 날리니, 열 살 남짓 손 위었던 소서노였지만 고주몽을 대하는 마음은 껍이나 설렘던 양입니다.

토착 세력가의 딸이던 소서노는 주몽과 혼인, 힘이 없던 기존 왕을 제거한 후 도읍을 옮깁니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바꾼 주몽은 동명성왕이라는 이름으로 등극해 일대 부족들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서노는 토착 세력의 분열을 잠재우고 주몽에게 힘을 집결시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주몽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온조가 동명왕의 후계자가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주몽이 도망쳐올 무렵 전 부인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이웃나라 왕이 된 아버지를 찾아온 주몽의 첫아들 유리에게 그만 왕의 자리를 뺏기고 맙니다.

하필 그 무렵 주몽이 세상을 뜨니 원망하며 차초지종을 따질 수도 없는 노릇, 소서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데리고 고구려 땅을 떠나 현재 서울시 송파구 지하철 8호선이 닿는 몽촌으로 내려와 흙으로 성을 쌓고 '십제'라는 이름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융성해져 훗날 '백제'가 됩니다. 그러나 홀로 미추홀로 떠나 나라 하나를 세운 장남 비류의 땅이 소금기가 많은 등 척박하여 오래가지 못했다 하니, 이렇게 사이가 틀어진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그 아들 둘 사이마저 희비가 엇갈리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소서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고구려의 시조로, 아들을 백제의 시조를 만든 이 놀라운 여성 소서노의 이름은 여태껏 주몽과 온조에 가려져 있었으나, 중국의 동북공정과 맞물리면서 우리역사의 주목할 만한 인물로 새삼 부각되고 있으며 새로운 여신의 존재로 다시금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여름, 세계여성학대회 참석자들이 초청된 충북 음성에 있는 큰바위얼굴 조각 공원에서 '소서노 동상 제막식'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그 이름을 풀어 가라사대, 열두 거리 굽 가운데 사냥 곳을 하던 무당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합니다. 무당이 굽을 할 때 작두거리에 들어가 칼을 입에 무는 형상을 보이는 소¹자²에 멀리 서³쪽에서 온 큰 활을 쏘던 노⁴자가 그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얘기로, 종교와 정치가 만 집 살림을 차리기 이전 공동체의 지도자다운 기상이 담긴 이름인 것 같네요.

똑같이 귀한 남과 북의 후손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신화
남북 분단은 우리 역사 또한 반으로 갈라 남쪽 사람들에게겐 고



구려가, 북쪽 사람들에게엔 신라가 마치 역사가 아니라 신화처럼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남쪽의 우리끼리만 본다는 사실이 문득 아쉬웠습니다. 광복 60주년 행사에 참석차 북에서 온 대표단이 안압지와 첨성대, 석굴암과 불국사 등 경주의 신라 유적지를 둘러보는 뉴스화면을 보니 더욱 더 그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명왕릉의 그 여자가이드는 주변의 소나무가 원래 제주도에서 온 나무라며 죽기 전에 꼭 한 번 그 아름다운 섬에 가보기를 꿈꾼다고 말했답니다.

신비의 섬 제주는 아마도 북쪽 사람들에게 더욱 더 궁금한 '역사의 자락'인 모양입니다. 금강산의 한 가이드는 '만덕'(위 그림)이라는 조선 제일의 여자 부자가 금강산에 다녀간 이야기를 무척 자랑스레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200년 전 만덕은 여러 해에 걸친 기근으로 제주도민의 3분의 2가 아사지경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이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러한 선행이 정조에게까지 알려져 정조가 친히 표창을 해 금강산 구경을 했던, 어느덧 제주의 여신이 된 전설적 존재입니다.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 우리는 남과 북의 흩어진 역사를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잊혀진 나머지 반쪽, 여성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온전한 이야기를 완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흥미진진한 길을 더듬어 걷다 만난 그녀들... 똑같이 귀한 남과 북의 후손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의 유화부인과 소서노, 그리고 만덕 할망을 위해 다같이 축배를! 🍷



김재희 페미니스트저널 '이프' 편집인
북쪽에 생존해 있는 사촌 여동생 사진을 건네받고 사촌언니를 빼박은 용모에, 작년 세상을 뜬 언니가 살아 돌아온 듯한 충격이었다는 그녀는 소식이 우리 현실과 통일 비전에 대한 사색의 단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통일교육하면 떠오르는 생각 하나 - 참여자들은 방청객인가?

내가 받은 통일교육을 기억해보면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1~2시간 북한관련 지식과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사의 강의를 듣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날 교육의 승패는 강사 한 명에 의해 결정된다. 통일 포스터 그리기, 글짓기, 웅변 등의 활동을 왜 하는가라는 물음은 배제된 채 매년 행사는 이루어졌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나에게 남은 것은 어쩌다 주어지는 부상품 몇 개였다.

교육 후에 설문조사보다 더 직접적이며 사실적인 평가를 듣고 싶으면 참여자들에게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또 참가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의무적인 교육이거나 교육자나 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많은 통일교육이 강의식 지식전달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교육의 주체가 교육자가 될 때 그 교육에서 참여자(학습자)는 방청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통일교육의 주체를 교육자에서 참여자(학습자)로 옮겨야 한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에서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통일교육은 '다시 참가하고 싶은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통일교육하면 떠오르는 생각 둘 - 재미 있으면 안되나?

강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강의가 재미있을 수 있는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강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 교양차원에서 한번 듣고 끝날 교육이라면 많은 강의비를 지불하더라도 그런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들으면 된다. 하지만 통일교육이 교양차원의 교육에 머무를 수 없기에 통일교육은 재미를 '고민'해야만 하는 교육인 것이다.

교육 후에 참여자들에게 그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한 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대부분 '재미 있었다, 그냥 그렇다, 재미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미'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느끼다"라는 의미보다는

배움과 감동, 또는 의식의 전환이나 확대, 즐거움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교육현장에서 이제 '재미 있는 교육'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재미있는가?

이 질문은 '다시 참가하고 싶은 교육이 되었는가'하는 질문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참여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일 것이다. 하지만 통일교육은 참여자들의 '재미'보다는 교육적 필요성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몰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 이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부차적인 관심사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재미있는 교육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나 북한에 대한 이해와 같은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의지·태도 등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갖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문제로서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이어지는 삶의 실천적 가치와 태도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의지와 태도는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함양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보다 재미있게 느끼고 이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과 고민도 요구된다. 민주시민교육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방법으로 담아낸 참여학습방법(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을 통일교육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제 지루하지 않게 놀면서 배우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펌프질로 물을 길어 올릴 때 한 바가지 먼저甕구멍에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그 물이 땅 속 깊이 마중 나가 큰 물을 데리고 온다. 참여학습방법은 교육자가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인 학습자들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내용인 통일의 필요성과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 우리의 노력 과제 등에 대한 앎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맥락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통일교육은 앎과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의 문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독일 통일 이후 독일식 정치교육방법을 한국적 교육문화풍토에 맞게 변형시킨 방법이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혹은 참여자 중심의 학습방법(참여학습) 또는 소위 강풍법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교육방법 역시 '민주적'인 것이어야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은 1) 교화 혹은 세뇌금지의 원칙 2)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 3) 사회적 논쟁의 원칙 4) 민주적 절차 교육의 원칙 5) 공동선 불가침의 원칙 등이다

그리고 이를 개인과 단체와 사회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자와 참여자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이론이나 경험은 나눔을 통해 더욱 폭넓은 지식과 가치와 의지로 만들어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가치와 의지가 미래에 어떻게 실천(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시행할 때에는 방법 자체도 이미 이러한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원리가 살아 숨쉬는 교육으로서의 참여학습방법은 재미와 감동이 교육자에게서 참여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선생이다'라는 인식의 출발점위에서 서로가 선생이 되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배우며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즉, 놀면서 배우는 참여학습은 참여자인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학습방법이며 이론중심이 아니라 과정이 신나는 교육, 재미와 감동이 삶으로 연결되는 교육방법인 것이다.

위의 참여학습 방법은 이미 통일교육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

통일, 이제 놀면서 배우자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만났을 때

을 인식하여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통일교육지침서'에 대략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이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단체들도 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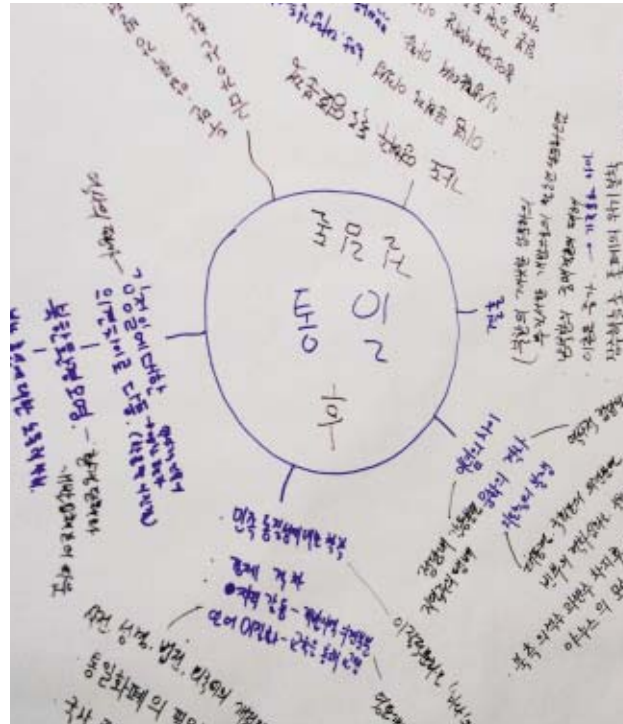
하지만 그 필요성에 비해 실제적으로 참여학습방법을 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일차적으로는 통일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다른 한가지 원인은 참여학습방법이 담고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단순히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육자의 의도와 가치에 반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비판과 무시, 비민주적인 절차, 참여자 집단에 대한 사전피악 부재,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공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풍토 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참여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아내어야 할 민주시민교육 원칙은 사라져 버린 껍데기뿐인 참여학습방법인 경우가 많다. 진행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여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더레이터(Moderator)가 필요하다

교육자(강사)가 교육내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더레이터(진행자)는 교육(진행)방법의 전문가로서 회의진행을 방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며,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는 촉매자이며, 문제해결방안이 창출되도록 유도하는 산파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더레이터는 교육과 관련된 제반 요건, 즉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교육이 진행되는 공간과 교육 기자재, 교육진행 시간과 그에 따른 참여자들의 심리변화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조합하여야 하는지를 찾아 최상의 교육을 만들



어나가는 교육(진행)방법의 전문가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지켜지고 참여자들이 각자가 원하는 바를 드러내 공동의 결정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모더레이터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한 참여학습방법이 통일교육 현장에서 교육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삶'이라는 큰 물을 데리고 오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윤경아 에듀플랜 교육전문위원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취득. 정부기관, 시민단체, 각급학교 등 관련 분야에서 참여학습방법론을 적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Moderator. 주위 사람들과의 수다(?)모임에서 분단과 통일 소재 영화나 관련기사들이 이야기 주제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통일이 이제 우리일상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김성학 에듀플랜 대표
2000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의 씨앗을 전국 지방공공에 뿌린 참여학습 방법론 전문가. 민주시민교육 포럼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6·15 5주년을 맞으며 '통일 과정이 어렵다는 안타까움과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현실 문제를 뛰어넘는 노력들이 주는 기대가 공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놀면서 배우는 '참여학습방법' 예

- ① **Ice-breaking 및 마음열기:** 소개와 사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 인터 뷰게임, 명찰게임, 뗏목여행, 다양한 조편성 기법 등
 - ② **강의를 여는 기법:** 모서리게임, 벌집, 번개, 질문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기법, 조편성, 기법, 컨디션온도계, 과녁을 쏘아라
 - ③ **토론주제를 모으는 기법:** Brainwriting, Brainstorming, Mind-mapping, 스티커 결정기법, 모더레이션기법(회의진행법)
 - ④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기법:** 신호등토론, 거리두기, 10초 퍼즐, 두마음토론, 연필게임, 문장퍼즐, 편집회의, 전문가초청토론회, 퀴즈게임, 터부토론, 오리조리, Photostanding, 강의안 만들기, 동물과 나, 정보를 파는 거리, 따로 또 같이, 미래체험학습
 - ⑤ **강의를 마무리하는 기법:** 동물과 나, Brainwriting을 통한 평가, 노래가사비꾸기, 나 c 놀이, 나에게 쓰는 편지, 세상에 하나뿐인 수료증 등
- ※ 각 교육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듀플랜www.eduplan.or.kr 참조

2005년도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4, 5, 6차)



- 주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일시-장소: 2005. 8. 7 ~9(4차), 8. 11~13(5차), 8. 17~19(6차)/ 금강산
- 참가자: 총 3차에 걸쳐, 유·초·중·고(특수학교, 각종 학교 포함) 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 회차당 310명씩 총 930여명 참가

통일교육원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교육전문가 및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국제정세 속 남북관계 현황과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교육정책, 그리고 최근 북한 변화실상을 전달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균형 잡힌 대북관 형성을 도모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공동 토론의 장으로 '2005년도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4~6차)'을 개최하였다.

특히, 각 학교급별로 제작된 최신 통일교육 영상교재 소개 및 상영을 통해 통일교육원의 임무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 관련교재의 지원 및 현직교사 네트워크의 지속적 구축을 위한 계기 마련의 기회가 되었다. 10월엔 대전교육청과 공동주관으로 제 7차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2005 통일교육 방송제작진 모임 워크숍

- 주제 : 1차= 방송제작진모임 활성화 방안
2차= 방송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일시-장소 : 1차= 2005년 7월1일~2일/ 통일아카데미 설악수련원(속초)



2차= 2005년 8월7일~9일/ 금강산(호텔 해금강)
통일교육원에서는 대학 관련학과 교수 등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와 신문·방송사 현직 기자 및 PD와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 워크숍에서는 남북화해시대 발전적인 통일교육 방향제시를 위한 학계-언론 방송 제작진간의 밀도있는 커뮤니티 모임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5 통일교육 아카데미 개최

통일교육협의회 부설 통일교육연구소 주관으로 '2005 통일교육 아카데미'가 10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열렸다.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10/16)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10/12, 10/19, 11/2, 11/8)
- 대상 : 통일 및 시민단체 실무자 및 회원, 북한 관련 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 시민 등
- 수강인원/수강료 : 50명 이내 / 수강료 없음
- 문의 : 통일교육협의회 사무국(Tel : 784-5615)
- 주요 내용 :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정세, 북핵문제와 한반도평화, 남북갈등 해소·국민통합

대학생 통일 FESTIVAL - 금강산으로 통일기행을 떠나자!



서울시와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제고와 통일시대 주역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로 '대학생 통일 FESTIVAL'을 개최하고 있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는 본 페스티벌 제8강 참가 대학생들을 모집중이다.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화통일**
내용 : 8강(10.6) 북한붕괴론의 허와 실 -북한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정영철 박사 서울대 국제대학원)



토론(10.12) 북핵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장소 : 흥사단 강당, 금강산
시간 : 오후 7시~9시

· 금강산 통일퀴즈

내용 : 제1, 2마당 우수 수강자와 제3마당 예선 통과 학생을 선발(30여명), 금강산 기행 및 통일퀴즈대회 본선 실시
* 북측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시기 : 예선·본선 / 10월~11월
신청 및 문의 : 02-3673-3825
* 참가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http://uni.yka.or.kr>를 참고하세요

남북청소년 토론회 및 통일글짓기대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관 함양을 위한 '제6회 하나원 방문, 남북청소년 토론회 및 통일글짓기대회'가 10월 22일 한국통일교육학회 주최, 통일정보신문 주관으로 하나원에서 열렸다. 특히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새터민 청소년과 남한 중·고생들의 자유 토론에 이어 글짓기대회를 치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 통일에 관심 있고 글쓰기에 자신 있는 중·고교생
인원 : 중·고교생 100명, 새터민 청소년 20명
후원 : 통일부·한국미사회·한국토지공사 더데일 리포커스
참가문의 : 통일정보신문 02)796-8347~9
* 기타 사항 홈페이지<http://www.unityinfo.co.kr> 참조 하세요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들이 사는 곳

지난 7월 중순,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 의료 NGO의 방북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 평양시가지와 평양시민의 일상생활, 북한의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3박 4일의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음 2월, 2박 3일간 금강산 관광은 첫 북한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감도 별로 들지 않았고, 시설·음식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지근무 북한 사람들 역시 개방적이고 친근한 면모에 딱히 특별했다거나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나 평양은 달랐다. 평양방문은 웬지 더 긴장되고 불안했으며, 또 실제 북한의 수도는 어떨까 라는 호기심으로 출발 며칠 전부터 머릿속은 뭔가 모를 것으로 꽉 차 있었다.

평양행은 출발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민족간 갈등과 첨예한 대립 속에 있는 한반도의 반쪽에 살면서 조금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모르고 그저 일상생활을 영위했던 국외자·방관자인 내가, 평양을 간다고 느끼자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지는가 하면 팽팽한 긴장감으로 남북간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출발 전 긴장된 느낌을 뒤로 하고 의료대표단 4명과 인천공항을 출발, 중국의 심양에 도착한 것은 현지시각 오전 9시 30분경. 몇 시간동안 심양시내를 둘러본 후 오후 3시경 고려항공에 탑승, 약 1시간 비행하자 평양순안공항에 첫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다. 평양까지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의외로 담담했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트랩을 내려가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초조해지고 괜히 왔나하는 생각도 스쳐갔다.

일행 배려 모습에서 우리랑 '별반 차이' 못느껴

그런데 공항에는 민간의료단체와 그동안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북한측 인사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그들과 악수를 하면서 몇 마디 하는 동안 긴장과 초조함은 눈녹듯 사라지고 구면인양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었다. 입국 절차 때도 엄격한 심사과정을 수월하게 통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등 우리 일행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데는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순안공항을 떠나 평양시내로 진입할 때 도로에는 차량이 드문드문 지나가고 주민들은 주로 걸어 다녔으며, 곳곳마다 '염소' 방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평양시내로 들어서면서 받은 느낌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정치상징물로 가득찬 세트장'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붉은색으로 쓰여진 대형 선전벽보, 회색과 흰색 배경의 건물들로 이루어진 평양시내는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짙은 녹색의 나무들과 색감의 대조를 이루면서 도시전체가 하나의 세트인 듯한 느낌이었다. 이미지로 되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

순안공항에서 약 30여분 지나 외국관광객들이 주로 묵는다는 양각도호텔(대동강변)에 여장을 풀 우리 일행은 북측에서 준



비한 환영만찬에 참석한 후 평양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긴장은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누가 보고 있지는 않을까, 듣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뒤척이다 선잠 끝에 아침을 맞았다.

평양체류 이튿날.

의료 대표단과 함께 대동강 근처에 있는 어느 구역병원을 방문하여 그곳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그동안 남쪽에서 지원한 각종 의료장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구역병원에는 남한 민간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심전도 검사기 등 첨단의료장비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일부 장비는 북으로의 운반과정에서의 파손 또는 부품 망실, 그리고 북한의료진의 기기운영 미숙, 특히 불안정한 북한전압 사정으로 인해 민감한 의료기기들은 제대로 치료에 이용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지원한 의료기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북한 의사들도 남한에서 보내온 의료기기를 환자예방 및 수술에 연중 사용하고 싶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전문 기술자도 없고, 시약 등 소모성 약품이 부족해 의료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하소연에 나 또한 속으로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났다.

구역병원을 나오면서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의료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을 단체간 네트워크 확

성화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지원장비와 수리기술자의 Pool제 관리'를 실시한다면 의료장비의 활용도가 보다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도 해보았다.

이어 셋째 날에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견학하고 남쪽의 민간 NGO들이 지원한 성형수술시설과 장비들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소형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일반주민들의 의상은 우리에게 비해 디자인이 떨어지고 질도 낮아 보였지만 색상은 생각보다 다양했으며 여성들도 멋을 의식, 옷맵시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

평양시내 주민들은 전차와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함께 가더라도 한마디 말도 없이 똑바로 앞만 보고 걷기만 하는 모습들이 매우 특이했다.

평양에서의 또다른 호기심은 음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식당 여종업원들을 '접대원 동무'로 호칭하는 것에서부터 메뉴판과 각종 음식 명칭이 우리와 달라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였다.

- 메뉴판 → 요리안내
- 오므라이스 → 닭알볶음밥
- 김치전 → 김치지지개
- 햄버거 스테이크 → 다진 소고기 구이 등
- 계란후라이 → 닭알 볶음
- 된장국 → 토장국
- 주스 → 통단물

맞본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평양의 옥류관 냉면과 명태순대, 북한이 자랑하는 단고기(개고기), 그리고 대동강 송어튀김 등이다. 평양냉면은 옥수가 매우 담백해서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고, 명태순대는 생태 속에 당면 등을 넣어 만드는데 생태가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맛이 독특해 남쪽에서의 부석부석한 명태맛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품이었다. 단고기는 부위별로 여러 종류가 세트 요리화 되어 나오는데 우리와는 또 다른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일반인 접촉을 허용되지 않아 아쉬웠던 3박 4일 평양 체류

평양체류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나가는 일반시민과 얘기도 해보고, 그들이 이용하는 상점에도 들어가 보는 등 보통시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들 일상 속에서 체험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일반 주민접촉은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이었다. 다만 우리를 안내한 북측 관계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는 있었는데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안 살고 분가하려는 경향이나 아이를 가급적 안 낳으려는 추세,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등은 남쪽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세계와 경쟁하려면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하고 아이들에게 영어교육도 잘 시켜야 하는데 이곳 평양의 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하다는 어느 북한 엘리트의 솔직한 토로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 고민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느껴졌다.(인터넷 강국, 정보화 강국이라는 우리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히 노력하고 항상 긴장하는데 하물며 북한주민은 어떠하랴?)

평양을 떠날 때 오기 전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없어졌지만, 웬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일까? 거대한 주체사상탑, 금수산기념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평양내 건축물은 너무 커 보이는데 정작 이곳 주민인 평양시민은 너무 초라하고 왜소해 보여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아서였는지 모른다.

평양을 떠나 심양을 거쳐 다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4일간의 평양방문은 종료되었다. 긴장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북측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도 일상의 대화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구나 하는 평범한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다. 동시에 “국가에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는지 모르겠다”, “나라가 집도 주고 일터도 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북측인사의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할지 마음의 숙제도 안고 왔다.



최규학 나눔 인터내셔널 사외이사
가시권에 들어선 통일과정에서 통일교육은 이제 남북관계를 피부로 체감케하고 통일정책을 지지·격려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북한의 '두 얼굴', 그 흑백논리를 넘어서서

남과 북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북한대표단이 서울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가 주관한 '8·15 민족대축전'에 적극 동참했는가 하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화상상봉'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또 남북통일축구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교류와 만남의 장을 넓히려는 서로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적대적 감정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에 대한 의구심으로 체제경쟁을 벌이던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인도적·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교류협력으로 남북 모두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자연스럽게 탈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내지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혼란과 갈등으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반공을 '국시'로 삼던 시절에는 정부 권위에 의한 흑백 논리식 정치교육으로 적대감과 경계심을 갖고 북한을 호전적인 집단으로 보는데 이견을 달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과거와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은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 할 피를 나눈 동족이기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해야 하는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들먹이는 위협적인 존재요, 그 예측 불가능으로 하여 더욱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의 심화와 그로 인한 정신적 혼란, 그리고 내부갈등이 심화된 것은 2000년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천만 온 겨레가 바라고 있는 '통일'을 생각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혼란과 갈등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몫이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두 얼굴의 이미지는 어느 정도 우리의 선입견과 최근의 상황변화 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한편의 이미지만으로 포장하여 그것이 북한의 본질이요 실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괴리는 영영 메울 수 없다. 흑^黑인지 백^白인지를 가리라고 우기기보다는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내 놓았던 '흑묘백묘론'의 유연성이 2005년 우리에게 절실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된다. ⑤



최선욱 경남대 정치학박사
남북 관계개선 노력은 동포애적인 입장과 상호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접점을 찾아 중단없이 지속돼야 통일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남북통일에 있어 무엇보다 '통일교육'이 중요하다고 새삼 강조

1971년 이후 '남북회담' 총 500회

관련수치로 보는 남북관계 현주소

남북이 지난 1971년 이후 정치·군사·경제·인도·체육 등 각 분야별 회담 총 횟수가 올 9월 15일 현재 500회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로는 회담횟수가 급증해 정치분야 27회, 군사분야 33회, 경제분야 56회, 인도·체육분야 25회 등 모두 141회(정상회담 포함)에 달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총 78회(정치분야 13회, 군사분야 16회, 경제분야 34회, 인도·체육분야 15회)로 남북화해시대의 각 분야별 남북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 한 예로 지난 98년 11월 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경우 올 6월30일 현재 바닷길·육로를 통틀어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편집부

1. 교류협력 분야

구분	'89-'97	'98	'99	'00	'01	'02	'03	'04	'05.8	계
인원	2,405	3,317	5,599	7,280	8,551	12,825	15,280	26,213	50,721	132,191

구분	'98.11-'12	'99	'00	'01	'02	'03	'04	'05.8	총계
인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37,674	1,094,671

구분	'90	'91	'92	'93	'94-'98	'99	'00	'01	'02	'03	'04	'05.8	계
인원	291	175	103	6	-	62	706	191	1,052	1,023	321	936	4,866

구분	구분		'03. 2-12	'04	'05. 1-8	총계
	인원	차량	출입	출입	출입	
전체	인원	출	43,038	321,088	305,385	669,511
		입	59,475	321,165	303,481	684,121
	차량	출	4,392	30,899	40,268	75,559
		입	4,391	30,615	39,907	74,913

연도	반입	반출	계
'00	152,373	272,775	425,148
'01	176,170	226,787	402,957
'02	271,575	370,155	641,730
'03	289,252	434,965	724,217
'04	258,039	439,001	697,040
'05.1-8	200,406	491,091	697,497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지원, 경제협력사업(개성·금강산·사회문화·기타), 경수로사업, KEDO 반출입 금액을 제외한 개념

조 성		운 용		
		사용액	보유잔액	
정부출연	24,714	46,811	공자기금예탁	600
민간출연	23		경수로 계정	(2,364)
공자기금예수	27,127		금융기관예치	(5,551)
운용수익 등	3,462		()가용재원	
계	55,326			8,515

2. 사회문화교류 분야

연도	정부차원	민간차원	합 계
'01	7,045(913억원)	6,494(844억원)	13,539(1,757억원)
'02	8,375(1,075억원)	5,117(641억원)	13,492(1,716억원)
'03	8,702(1,041억원)	7,061(847억원)	15,763(1,888억원)
'04	11,512(1,323억원)	14,108(1,661억원)	25,620(2,984억원)
'05(8월)	15,005(1,501억원)	5,416(555억원)	20,421(2,056억원)

구분	'95.6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누계
일반구호	23,225 (100)	455 (99)	4,329 (92)	2,891 (91)	565 (12)	1,434 (13)	6,067 (45)	4,174 (31)	6,157 (39)	10,538 (41)	2,821 (14)	62,656 (46)
농업복구		5 (1)	205 (4)	254 (8)	3,941 (84)	8,562 (75)	5,476 (40)	7,351 (54)	7,673 (49)	9,450 (37)	16,047 (78)	58,964 (43)
보건의료			189 (4)	40 (1)	182 (4)	1,380 (12)	1,996 (15)	1,967 (15)	1,933 (12)	5,632 (22)	1,553 (8)	14,872 (11)
계	23,225 (100)	460 (100)	4,723 (100)	3,185 (100)	4,688 (100)	11,376 (100)	13,539 (100)	13,492 (100)	15,763 (100)	25,620 (100)	20,421 (100)	136,492 (100)

구분	'95.6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누계	
한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11,512	15,005	88,599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14,108	5,416	47,893
	계(A)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5,620	20,421	136,492
국제사회(B)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	217,792	
총계(A+B)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60	29,695	41,943	20,421	354,284	
(A/A+B(%))	80.7	4.5	15.2	9.5	11.5	38.5	27.5	34.0	53.1	61.1	100	39.0	

회차	기간	인원	회차	기간	인원(명)
1차	'00. 8.15~18	1,172	6차	'03. 2.20~25	850
2차	'00.11.30~12.2	1,222	7차	'03. 6.27~7.2	899
3차	'00. 2.26~28	1,242	8차	'03. 9.20~25	942
4차	'00. 4.28~5.3	849	9차	'04. 3.29~4.3	969
5차	'02. 9.13~18	875	10차	'04. 7.11~7.16	957
			11차	'05. 8.26~31	908

* 생사·주소확인 : 총 27,401명
* 서신교환 : 총 679명



‘한민족 경제공동체號’ 현재 순항중

‘개성공단사업’ 현황

평양에서 160km, 서울에서는 한 시간 남짓한 60km (북방 한계선으로부터는 1.5km)거리에 위치한 북한 황해도 개성시 봉동리 남단의 ‘개성공단’. 이곳 개성공단 시범단지(2만8천 평)에는 9월말 현재 11개 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중이며 4개 공장이 건설중으로 올 연말까지는 총 15개 기업이 모두 가동될 예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은 총 면적 2,000만평(6,610ha)을 2012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별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계전문업체 (주)로만손, 의류업체 (주)신원, 전자부품업체 (주)SJ테크 등 에서 4,5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우리측 근로자 500여 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북측 근로자의 생산성 및 숙련도가 예상보다 짧은 기간에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북한 첫 ‘한민족 경제공동체號’는 현재 순항중이다.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확장구역	개성시가지	총면적
개발기간	'02~'07	'06~'09	'08~'12	추후협의	추후협의	-
면적	공단	100(330)	150(500)	350(1,160)	200(660)	-
	배후도시		100(330)	200(660)	500(1,650)	400(1,320)
	소계	100(330)	250(830)	550(1,820)	700(2,310)	400(1,320)

남북 토막뉴스

분단 후 첫 전통공예품 교류전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덕수궁 석조전에서는 제1회 남북전통공예 교류전(대회장: 정양모 전 중앙박물관장)이 열렸다. 분단 60년만에 최대규모로 열린 이번 교류전에서 양측은 공예수준과 발전상황, 차이점과 동질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남북 불교계 교류 활발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 금강산 신계사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전국신도회와 공동으로 남측 200여명, 북측 50여명 등이 모여, 스님이 아닌 신도들만 참석한 법회로는 처음으로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합동법회’를 열었다.

분단 60년만에 남북 문학단체 결성

민족문학작가회의(이사장: 염무웅)와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병훈) 등 남북한 문인 대표 200여명은 지난 7월 2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열고 ‘6·15민족 문학인협회’를 구성했다. 남북 문인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날 이들 단체는 ‘6·15 통일문학상’을 제정·시상하고 기관지 ‘통일문학’ (가칭)을 발행키로 합의했다.

북, 비즈니스 스쿨 첫 졸업생

스위스 정부 산하기구인 기업개발국DCA의 북한지원기금으로 설립한 학교 ‘평양비즈니스 스쿨’ 첫 졸업생 배출과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8월 19일자로 북한 최초의 사립학교라면서 이 학교 직접 탐방 르포 기사를 게재했다. 현지취재 피플드 기사는 “북이 이제는 전자상거래, 시장조사 등 서구적인 경영방식을 적극 배우려고 한다”고 전하고 있다.

금강산서도 옥류관 냉면 판매

금강산 관광객 수가 지난 6월 7일 1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급증 추세에 부응하듯 평양 옥류관냉면을 금강산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현대아산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산 온정리에 옥류관 분점(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97평 규모)을 신축, 지난 8월 15일 문을 열면서 평양 옥류관 요리사(총주방장 1명, 담당요리사 25명)가 파견돼 직접 만드는 평양냉면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 둘! 하나 둘! 따로 또 함께”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

여기는 경기도 안성 작은 동네에 위치한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입니다. 하나둘학교 학생들은 제 각기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들 압축된 역사적 삶을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숨어 지내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으로의 먼 길을 돌고 돌아 남한 이 곳에 정착한 것이죠.

수천 킬로미터의 사막과 정글을 지나 수많은 지뢰밭과 철조망을 가로질러 연결된 ‘서울행 지하철도’라 불리는 인간고리를 따라 오면서 이미 이들은 엄청난 인생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 지난 2001년 2월 설립된 학교가 ‘하나둘학교’이며 벌써 올해로 개교 5년을 맞고 있고 이제껏 졸업한 아이들만도 약 900명에 달합니다.



“북한의 교육체제 내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과학·지리 그리고 역사관 차이로 너무 달라진 국사, 거의 생략되다시피 한 세계사 등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보충교육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 과목이 결국 국어수업이 되어버리는...

개교 초기에는 모든 교과서를 펼쳐놓고 특히 이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영어와 컴퓨터 수업에 주력했었지만 곧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한 북한의 교육체제 내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과학·지리 그리고 역사관 차이로 너무 달라진 국사, 거의 생략되다시피 한 세계사 등 기초 지식을 배양하는 보충교육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회 과목조차도 그냥 읽고 이해하기에는 내용과 용어가 너무 달라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 없이는 진도 자체가 어려워 결국 국어수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수학은 비교적 공통점이 많았지만 그것 역시 용어와 교수방법, 연습량의 차이로 그리 쉽게 극복되는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희망으로 여겼던 학생들의

강한 의욕과 적응능력마

저도 북쪽과는 다른 남한의 주입식 수업패턴과 두꺼운 교과서 앞에서 쉽게 꺾여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탈북 후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학습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공부하는 습관과 학습동기를 유발시켜 주는 과제가 시급했으며 더더욱 문제가 된 것은 약간의 개인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아와 탈북, 가족과의 이별, 신변의 위협 등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정신적·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처 치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들이 적응해야 할 이질적인 남한 사회의 문화적 충격(역양, 학습능력, 행동양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왕따’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Mini Interview

Q & A

Q 통일을 앞당기는 나름의 방법을 제시한다면?

A 우리사회에서 ‘북한’ 또는 ‘새터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입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 통일 후 우리가 더 못살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통일이 된 후에 더욱 잘 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나 새터민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경험이죠. 새터민을 직접 만나본다면, 그들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직접 접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괜히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무서울 것이라든지 과격할 것이라든지 등의 편견을 가집니

다. 직접 접해보지 못하더라도 친한 친구에게 만나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인식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에서 휴전선을 지운다고 해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통일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미리 함께 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곧 통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실천방법으로 친구든 선배든 만나면 꼭 말합니다. 새터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한국 사회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곳 휴전선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Q 통일을 기대하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터민들을 만나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새터민이 각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종교단체, 기타 시민단체를 통하면 새터민을 만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통일교육시간에 많이 배워야겠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

■ 남북한 전력실태 비교표 -1

항목	남한		북한	
	수력	화력	수력	화력
설비용량 (만kW)	5,996 (7.7%)	3,936	777	296
발전량 (억kW)	3,421 (설비용량 66.5%) (17.5%)	59	206 (설비용량 23.4%)	81
원자력	-	1,307	-	-

(2004년 기준)

■ 남북한 전력실태 비교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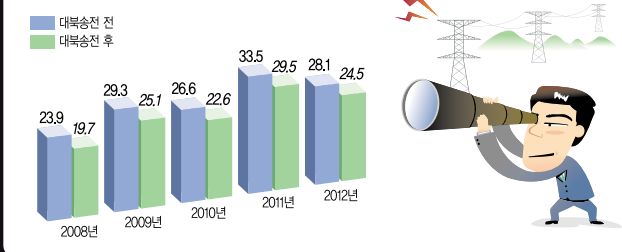
	남한	북한
설비이용률(%)	66.5	30.3
주파수(번)	60	60
송전전압(kV)	765/345/154/66	220/100/66
배전전압(kV)	22.9/6.6/220V/110V	20/10/6/3/220V/110V
수요특성	연간: 하계 피크형 일간: 12~15시 피크	연간: 동계 피크형 일간: 19~21시 피크
전력공급	무제한공급	제한공급
계통연계	단독계통	단독계통

(200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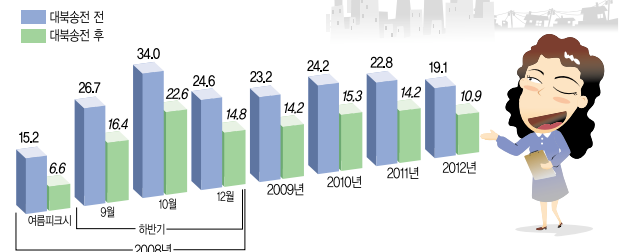
중 대제안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북핵' 돌파구로, 그리고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진행되다 2년째 중단 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의 종료 대신 재개시 소요되는 비용(잔여공사비 추정치 35억 달러 중 70%인 24억 달러 규모)으로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전력사정(에너지난)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북한의 전력공급 능력은 수요의 절반 수준으로 전력수요는 400만~450만kW이나 공급량은 230만~240만kW, 설비이용률 23.4%(03년 기준) 정도에 지나지 않아 200만kW 내외의 전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석탄 69%, 수력 19% 등 전근대적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 이런 북한의 전력사정은 가뜰이나 어려운 북한경제(북한의 각 업종별 산업은 만성적인 에너지난에 설비 노후화로 생산과 공급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력

■ 전국 전력 설비예비율 전망



■ 수도권 전력 설비예비율 전망



난은 북한 경제회생과 남북 전력망 연계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시켜 현재 진행 중인 남북경협의 발전 동력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남북 당국간 회담과 6자회담을 통해 전력 등 에너지 지원을 요구해 왔다. 혹자는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주다 보면 우리측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데 정부는 2017년까지의 국내 전력 수급상황을 전망한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04. 12. 30, 산업자원부 공고)을 기초로 '중대제안'을 수립하였는바, 이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력 설비용량을 확충할 계획이어서 2008년부터 200만kW 대북 전력제공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전 후 설비예비율은 2008년 이후부터는 대략 20%대의 설비예비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200만kW 대북송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북 송전은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중 하나인 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비용'인 셈이다. 북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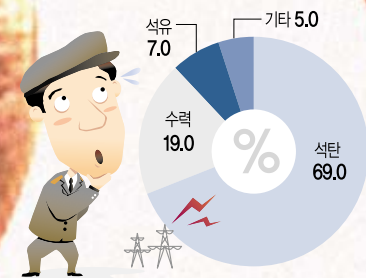
'중대제안'이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제안으로서,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다' (2005. 7. 12)으로 '중대제안'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핵문제를 조기에, 영구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남한의 경제환경을 일대 전환시키고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도 아울러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남북 경제의 상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경제공동체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통일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송전사업에 따른 관련업체의 내수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허운 통일교육소식 편집위원 (주)경향C&I 총괄팀장
 지난 8월 금강산에서 북쪽 여성동무와 6차 회담, 통일 관련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랑 생각이 같음을 새삼느꼈다고. '그렇다면 남남갈등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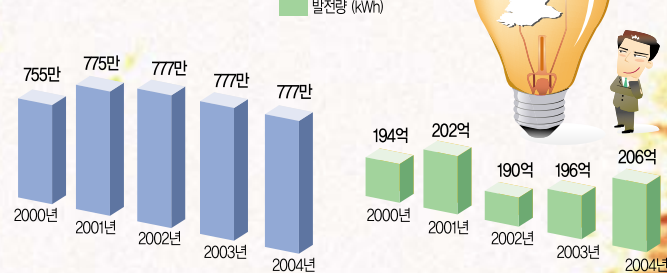
■북한 에너지 소비구조 (200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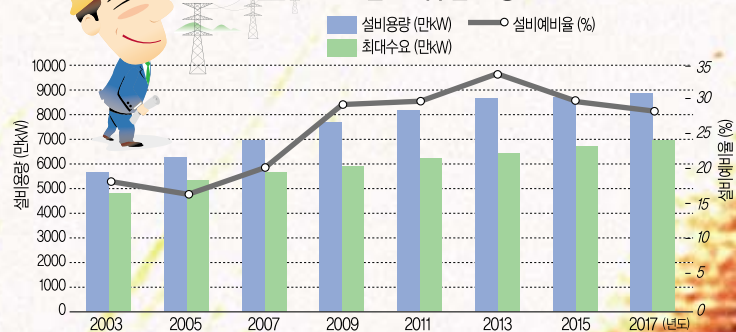
■총 1차 에너지 소비량 및 원유도입량 (2003년 기준)



■북한의 최근 5년간 전력 통계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



‘의료·보육·교육’ 3색의 희망 전령사

지난 8월 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감회는 어느 방문 때와 달랐다. 어느 덧 40회를 넘긴 평양방문은 매우 익숙한 여행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간 일행들을 모두 평양에 남겨둔 채 혼자 순안공항을 떠나오며, 지난 기억들이 머리를 맴돌고 있었다.
 금번 방북의 목적은 우리 단체에서 지원하는 '조선적십자종합

병원' 내 외래종합진료소 피부과에 홍반(붉은 반점)치료를 위한 레이저 치료기기를 설치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과 현재 추진 중인 '평양의료협력센터' 신축과 관련한 협의 등 두 가지였다. 첫 번째 목적을 위해 함께 방문한 레이저 치료기기 기술자는 3일을 꼬박 설치작업을 한 끝에 만족할 만한 레이저 발생을 확인하고 내가 평양을 떠난 27일(토) 오전부터 환자치료에 들어갔다.

오전에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얼굴과 목의 심한 붉은 반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지켜본 뒤 나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월요일까지 붉은 반점 환자치료를 재삼 부탁하고 떠나 왔다.

이번에 처음 북한에 전달된 붉은 반점 치료용 레이저 기기가 예정대로 설치되어 잘 가동되자 북한 의료진은 물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얼굴에도 환하게 웃음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일로 그동안 고생했던 기억과 피로가 한순간 사라지는 걸 느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물자를 선적하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까”라는 위로의 말을 되레 들을 때, “아! 이런 것이 이심전심, 한 핏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두 번째 방북 목적인 ‘평양의료협력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간 4명의 기술자는 앞으로 40여일간 북한에 더 머물 예정이다. ‘평양의료협력센터’는 ‘나눔 인터내셔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으로서 지난 2004년 7월 북측 조선의학협회와 건립을 합의하고, 올해 초 ‘평양 만경대구역 축전1동’에 5,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정하였다.

그동안 북한과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했던 것은 북한에 지원한 의료장비 보관과 그때 그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료장비의 보관과 수리는 물론 향후 생산기지의 역할까지 해 남 북의료협력을 위한 연구개발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평양의

료협력센터’ 건립을 북측에 제안(2004년 초)게 되었고,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 서게 되었다.

1차로 ‘의료장비 관리동’을 지난 5월과 6월 두 번의 기술자 방북시 남북 합동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였다. 금번 방북은 부속건물인 연구동 건축을 위해 8월 17일 20개 컨테이너 분량의 2백 43종류 물자를 탁송한 지 1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직원들과 인천항에서 밤늦게까지 물자를 선적하면서 이 많은 물자를 남포항에서 의료협력센터 부지로 옮겨 놓으려면 우리보다도 북측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걱정했건만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조선의학협회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물자를 선적하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까”라는 위로의 말을 되레 들을 때, “아! 이런 것이 이심전심, 한 핏줄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났다.

남포항에서 매일 밤 1시까지 물자를 옮기면서도 남쪽에서 물건 보내는 사람들의 고생을 생각하는 북측사람들이나 한밤중까지 인천항에서 물자를 배에 실으며 북측 관계자들의 고생을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새 협력사업을 위해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원물자의 유용이나 속임수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유용은 커녕 우리가 보낸 물자가 하나라도 상할까봐 걱정하며 운반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같이 간 일행들에게 남은 일을 부탁하고 평양을 혼자 떠나오며, 그동안 만났던 많은 북측 사람들을 생각했다. 아태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코스타 일꾼들, 젓소목장과 닭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만났던 농장 지배인들과 일꾼들, 고아원 보수 사업을 추진하며 고생한 원장선생님과 일꾼들, 소학교·중학교·유치원·탁아소 관계자들… 인민병원 원장님·의료진들, 그리고 지금 함께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적십자병원 의료진과 일꾼들….

어떤 협동농장에서는 정성껏 차려준 감자 고구마 옥수수를 가방에 잔뜩 구겨 넣으며, 평양에 가져가 먹겠다고 하니 아예 모두 종이박스에 싸서 차에 실어주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던 모습. 더운 여름이라며 잘 못 먹는 개장국까지 직접 끓여주기도 하고, 고아원 공사를 하는 중에 아이들 방에서 보육사들과 아이들에게 우유를 같이 먹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은 지난해 4월 ‘한세병원’ 의료진과 함께 방북하여 진행한 ‘척추디스크 시범수술’이다. 4박5일 일정 중에 24명의 환자를 치료하였다. 11명은 수핵성형술 및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였고, 13명은 통증치료를 하였다. ‘척추디스크 수술’에 필요한 장비들을 먼저 탁송하고, 북측에서 환자들의 MRI 사진과 X-ray 사진을 미리 준비한 후 우리 의료진 8명이 방북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 우리 의료진에게는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처음 시술하는 전신마취 수술을 지켜보는 양측 관계자들은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이였다.

2만건 이상의 수술을 한 우리측 의료진들도 북한에서의 첫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모두 안도하는 모습이었으며, 회진을

도는 우리들을 맞이하는 북측 환자들의 밝고 꾸밈없는 모습과 해맑은 웃음소리는 마치 사춘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느 여학교 교실에 있는 듯 착각하게 하였다.

‘나눔 인터내셔널’에서는 북한의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평양 9.15 주탁아소·개선유치원·신원동소학교·제1중학교 등을 지원하며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미래가 남북한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눔 인터내셔널’에서는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사랑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60년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후대에는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방북을 통해 내 마음속 깊이 새긴 것은 아픔과 오해, 그리고 불신은 ‘사랑’을 나눔으로서만 극복될 수 있다는 진리이다. 이젠 서로 미워하기보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찾고 배워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눔 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남북간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전령자로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윤상 나눔 인터내셔널 대표
우리네 부모세대와 선배들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던 만큼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가 더 이상 분단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북한에서의 첫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회진을 도는 우리를 맞이하는 북한 환자들의 밝고 꾸밈없는 모습과 해맑은 웃음소리는 마치 사춘기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느 여학교 교실에 외있는 듯 했다



인간과 문화 변화가 '통일열쇠'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책을 보니



·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2005년 6월24일 초판
· 304P, 1만 5천원

“북한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북지원이나 압박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독의 오스탈기(Ostalgie) (동독에 대한 향수)같이 북한의 부정적인 인성과 문화가 다음 세대에 복제되는 것을 저지하면서 북한의 개혁이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노동자적 사회의 노동자이든, 감정정체현상에 매몰되어 국가를 등진 인간이든지 간에...”

- 본문 내용중에서 -

‘동’족 개념의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빨간 톤의 표지 색깔에 제목마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기존의 남북관계의 기본개념에선 북 디자인도 표제도 가히 도발적인 시각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이 낸 이 책은 ‘남과 북은 한민족이 아니다’ 라는 도발선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한민족’이 아니라니...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에서의 경험과 나름의 생활은 이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의 선 저너머로 높다 높은 벽을 쌓았기에 남과 북이 공히 발전 번영하기 위해선 민족개념을 버리고 북한에 대한 실증적 통일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1인당 GNP는 통일 이전에 비해 무려 1만달러 이상 감소한 독일통일의 그늘을 보면서 더구나 통일 이전에 단일민족이라는 감정공유가 이젠 서로를 오시(동독인을 부르는 말)와 베시(Wessi(서독인을 부르는 말)로 쪼개 부르며 ‘독일민족’은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개탄하는 독일통일을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열쇠이다.

베를린자유대학 중신교수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비교통일정책’을 강의하는 박성조 교수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통일정책연구팀원들이 통일 이후 독일을 연구 분석한 결과는 잔혹하리만치 냉혈적이다. 남북이 통일되어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면 남북은 한반도에 번영의 깃발이 펴릴이는 것이 아니라 ‘동반 붕괴’를 전망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동반 붕괴’의 이론적 근거로 독일 사회학자 볼프강 앙글러(Wolfgang Engler)의 ‘노동자적 사회’ 개념을 그 첫째로 들고 있는데, 노동자 사회를 표방한 동독은 실제 ‘노동자는 자신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적 사회였고 이런 노동자(한량 같은)들은 통독 이후 냉혹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근거로는 동독 출신 정신과 의사 마츠(Hans Joachim Maaß)의 ‘감정정체’ (Gefühlsstau) 개념을 들고 있다. 사회 전체가 공포를 먼저 학습하는 환경에서 자란 동독인들은 나와 남이 다른 것을 인정치 못하고 그 원인을 자신보다 외부 인간과 환경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맹목적이고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북한(주민과 사회)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토록 유도해야 독일 통일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에 주목하라’,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려라’는 주장은 한번 되짚어 봐야 할 통일 화두가 아닐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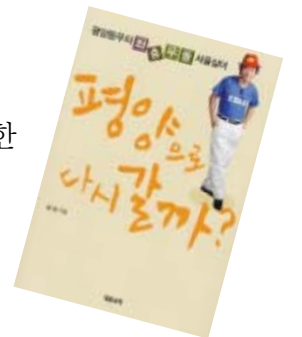
편집부

평양동무의 좌충우돌 서울살이 10년

‘평양으로 다시 갈까?’ 저자 립일



지난 9월 3일 서울 거여동에서 ‘평양으로 다시 갈까?’ 저자 립일 씨를 만난 지 이틀 후 9월 5일 ‘아 고구려’ 평양오페라공연 업무차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이르렀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가을 하늘은 립일 씨가 떠나오던 1997년 3월의 어느 봄날처럼 쾌청하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란 세월을 무상케 하듯, 코스모스 살랑대는 순안공항에서 10년 전 쿠웨이트 ‘조선광복건설회사’ 외화벌이 노동자로 파견되던 립일 씨의 희비에 찬 모습을 그려보기는 쉽지 않았다



림 일 씨를 만나기 위해 거여동 영구임대아파트로 향하면 서 지금은 '새터민'으로 바뀐 '탈북자'에 대한 여러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동안 '안보강연회'에서 만난 새터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림일 씨와 림일 씨 본인이 쓴 '평양으로 다시 갈까?'에는 북한에 대한 소중한 추억,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 등이 진솔하게 담겨 있기 때문이다. 거여동 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올림픽대로 교통체증으로 1시간 가량 시간이 지난 뒤였다.

남쪽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라는 필자의 말에 림일 씨는 "원래 북쪽 사람 성격이 더 급합니다" 하면서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아직까지는 북쪽 억양을 가지고 있어 서울말이 서투른 그는 미소가 서린 선한 인상, 털털한 성격에 지나치는 거여동 주민들과 인사하느라 환한 웃음이 가득하다.

는 낯설음과 소외감이었습니다. 특히 두음법칙에 의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성이 '림'에서 '임'으로 바뀐 사실들을 비롯해서 내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생활용어들이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같은 새터민으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아내께서 몸이 불편하여 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슴 아픈 시간들을 이겨 내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 각별해 졌을텐데요.

림: 제가 의지할 데라고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40세)는 저보다 두 살 연상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를 만나야 능력 있는 남자라는데.(웃음) 아내는 미장원에서 일하고 저는 컴퓨터 CI를 하면서 굶지는 않을 정도로 욕심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뒤늦게 탈북하여 가족 전체가 서울에 온 아내는 전형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성이 ‘림’에서 ‘임’으로 바뀐 사실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북쪽 생활용어들이 마음과 정신을 혼란케 할 때면 북한 고향 그리움은 더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약속은 온 세계와 인류에 약속한 ‘평화’의 약속입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꼭 이뤄져야 합니다”

이점호 객원기자(이): 10년의 서울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남쪽사회 적응에 대한 심적 고통과 고민이 많았을텐데...

림일 씨(림):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요. 평양을 떠나오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다했다 하지만 가족과 친지를 떠난다는 슬픔은 가슴 에이는 고통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난 1989년 사회안전부(경찰청) 경리처에서 근무할 무렵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외건설기업소' 근무시절부터 해외를 다녀온 동료들로부터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고통은 덜 했지만, 평양순안 공항을 떠나던 날 제 마음의 양 거리에 낙엽이 무수히 떨어지고, 파란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겪은 문화적 차이라면 단연 언어의 이질성에서 오

적인 북한가정의 아내로서 서울 생활이 힘들었는지 자궁 외 임신과 만성 편도염으로 한동안 힘든 병원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힘든 직장생활 인데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묵묵히 내조해주는 아내가 제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 온 새터민으로서, 그리고 10년살이 서울시민으로서 평화와 남북화해에 대한 소망이 간절할 텐데, 통일에 무관심한 남쪽의 젊은이들에 대해 해주고 싶은 가슴속 깊은 신념 같은 것이 있다면?

림: 서울에서 10년간 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북쪽 사회와는 달리 남쪽의 청소년을 비롯한 20, 30대는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주로 고민하는 주제들이 '경제' 부문에 많이 쏠려있는 것 같아요. 통일은 지금 같은 무관심 속에서 절대 이루어

저자 림일

1968년 부림용석, 모김정희의 3남으로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대동강남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안전부'와 대외경제위원회 산하 '평양대회건설기업소'에 근무하였다. 1996년 11월부터 쿠웨이트 주재 '조선광복건설회사'에서 근무 중, 1997년 3월 한국으로 망명하여 한국산업기술교육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 현재 서울에서 C제작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질 수 없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이 통일 될 때까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과 북 관계는 가족관계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는 '남'으로 봐야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상황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에 사는 민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남북관계를 부모와 형제 관계를 뛰어넘어 '남'이라 생각했으면 합니다. 서로를 '남'이라 생각하고 부족한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주고, 기쁠 때, 슬플 때 서로 고락을 나누면서 동포애로 넘치는 함박 웃음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자미의 편지



장 노인은 방 안에서 거의 한 시간이 넘도록 혼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그렇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그가 오랫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따로 기다리는 프로가 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그 프로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마침내 장 노인이 기다리던 프로가 시작되었다. 그는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지한 자세로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각, 금강산에서는 광복60주년을 맞아 제1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그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오열하는 장면들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오마니랑 형님, 다 돌아가셨단 말인가?”
“네.”
“기림, 막내 너 혼자 달랑 남은 기가?”
“...”

어느 이산가족 중의 막내는 대답 대신 흐느끼다가 나중에는 영영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피와 살을 나누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정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장 노인은 자신이 화면 속의 이산가족 당사자인 두 눈에 이슬

을 맺고 있었다.
“아버지!”
“...”
“저, 잠시 나가요.”
“...”
장 노인에게 황급히 눈물을 닦게 한 것은 거실에서 들려온 큰 딸의 목소리였다.
“뛰라구?”
이윽고 장 노인은 방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상반신을 내밀었다.
“시장에 다녀올게요.”
“...”
“내일이 김 서방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
장 노인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큰 딸이 현관문을 채나서기도 전에 다시금 화면 속으로 눈길을 돌렸다.
장 노인이 큰 딸에게 건성으로 대하고, 텔레비전에 심취한 것은 기다리던 프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기실 큰 딸에게 얽혀 살고 있는 처지였다. 그래서 큰 딸이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벌써 5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장 노인의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 누웠다가 이내 세상을 떠나자, 이미 딸 둘을 출가시킨 그는 독거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살다보니, 혼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딸들이 서로 다투가며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장 노인은 그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3년쯤 지난 뒤 그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독거생활을 청산하고 큰 딸네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처지이고 보니, 딸에게 되도록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매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의 생활태도로 굳어졌고, 건성으로 대하는 것이 습관처럼 돼버렸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생중계방송이 끝나자, 장 노인은 눈물에 젖었던 두 눈을 끔벅이며 방바닥에 스프르 몸을 눕혔다. 아련한 고향 하늘이 떠올랐다. 곧 눈꺼풀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그런데 장 노인은 갑자기 자기 몸이 이상한 형태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몸 전체가 금방 가자미로 변태한 것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가슴이 섬뜩했다. 몸이 납작하고 두 눈이 오른쪽에 쏠려 있어 흉물

스럽게 보이는 바닷물고기. 장 노인은 징그러운 두 눈 때문에 손대기조차 싫은 그런 물고기로 변신한 자신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이 것이 대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가 문득 떠올랐다.
“너, 가자미를 아냐?”
“몰라요.”
“납작하게 생긴 물고기야. 두 눈이 오른쪽으로 몰려 붙어설라 무네 꼭 사팔뜨기 같이 생겼다.”
“징그럽게 생긴 모양이구만요?”
“기림... 기림데 가자미의 두 눈이 와 한쪽으로 몰려 붙었는지 아냐?”
“본 적도 없는데, 내래 어케 알겠시요?”
그는 옆으로 눈을 흘기며 어머니를 쳐다봤다.
“옛날에 어떤 불효 막심한 녀석이 있었는데, 걸핏하면 자기 부모한테 눈을 흘기곤 했더랬어. 그래서 그 녀석은 결국 신벌을 받고 일찌감치 죽고 말았다. 기림데 옥황상제가 그 녀석을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했던 기야. 자기 부모한테 눈을 흘길 때처럼 두 눈이 한쪽으로 몰려 붙은 물고기로 만들어서 말이야. 기거이 바로 가자미야.”
“...”

“기러니까네 어른들한테 함부로 눈을 흘기거나 불효를 하르는 너도 죽어서 가자미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기야. 알겠어?”
“...”

장 노인은 자신이 가자미로 변신한 까닭을 모르는 채 본래의 모습으로 환원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쏟았다. 온몸을 흔들며 세찬 저항도 했다. 하지만 자기 능력의 한계를 실감했을 뿐, 모두가 허사였다. 그래도 그는 인간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몸부림 쳤다. 몸을 움츠렸다가 쪽 뻗는 동작을 사력을 다해 수없이 반복했다. 그 때 어머니가 느닷없이 나타나 길다란 회초리로 그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것이었다. 그는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백주의 꿈이었다.

장 노인은 꿈을 깨나고도 가자미로 변신한 자기 모습과 어머니로부터 들은 가자미 얘기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서로 연관되어 그를 움아매고 있었다. 아무래도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불현듯 세찬 바람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닐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뿜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장 노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것은 적십사의 확인을 거친 일이며, 수원에 사는 고향 선배로부터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돌아가셨을 것으로 체념한 장 노인에게 그리운 부모 소식이 전해진 것은 6년 전의 일이었다. 아버지가 남측의 자신을 찾고 있다는 자막이 모방송사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다.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한 결과 부모와 형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상봉 신청을 했다. 하지만 다른 이산가족들보다 나이가 적은 탓에 아직도 상봉 기회가 닿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수원에 사는 고향 선배가 그의 노모와 상봉했는데, 그 때 장 노인의 부친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있어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 혼령이 와서 나를 때린 걸까?’

장 노인은 어머니가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당장 목놓아 울고 싶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의 그런 모습을 큰 딸이 보게 되면 그도 역시 괴로워 할 것이고, 집안 분위기가 흐려질 게 뻔해 함부로 통곡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수원으로 갈까?’

장 노인은 고향 선배를 찾아가 꾸념을 늘어놓고 실컷 울었으면 싶었다.

‘나도 해원치성을 드러볼까? 그 선배처럼...’

몇 년 전, 고향 선배는 부모의 생사가 궁금한 나머지 어느 무녀를 찾아갔었다고 했다. 거기서 점을 봤는데, 무녀는 조상을 위한 치성을 드리면 부모 중 어느 한쪽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생각한 끝에 무녀의 말대로 치성을 드렸더니, 얼마 안 있어 노모를 상봉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장 노인은 이내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말았다. 자신의 경우는 그 같은 치성마저 딸과 사위를 괴롭히게 될 것 같아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빌어먹을...’

장 노인은 원성을 토해냈다. 그것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산가족들이 맘놓고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원망이었다.

‘대체 통일은 언제쯤 이뤄질 거란 말인가.’

장 노인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데가 없어 혼잣말을 연방 쏟아놓고 있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이 불효자식을 나무라고 계시겠지?’

장 노인은 가자미로 변신한 꿈을 꾸게 된 것이 복녕에 살아 계시는 어머니가 자신의 불효를 꾸짖는 거라고 생각되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시장에 간 큰 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 때까지도 거실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장 노인은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은 소학교를 졸업한 열네 살 때의 일이었다. 당시 천안에 고모네가 살고 있었는데,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고모에게서 기별이 왔었다. 일손이 모자라서 그러니 아들 둘 가운데 어느 놈이든 속히 내려보내라고. 싫던 형을 대신해 그는 부모형제와 작별하고, 천안으로 내려갔다. 낮에는 양조장 일을 거들어 주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녔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져 오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그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다녀왔습니다.”

큰 딸이 시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도 때맞춰 들어왔다. 그들은 얼마 후 거실에서 채소를 다듬으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장 노인의 귀에도 들렸다.

“엄마! 오늘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이 만나는데, 우리 반 친구 할머니도 북측 가족을 만날 거라고 했어.”

“그래? 그 할머니 좋겠구나.”

“...”

“어서 통일이 돼야 한텐데...”

“통일이 되면 뭘 해?”

“그래야 모든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살게 될 게 아니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측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또래 애들은 상당수가 통일을 원치 않는대.”

“그게 문제야.”

바로 그 때였다. 장 노인이 방문을 외락 열어젖트리며 소리쳤다.

“대체 어떤 놈이 그 따위 소릴 해?”

그 순간, 큰 딸과 손녀는 화들짝 놀랐다.

“죄송해요, 아버지!”

“...”

장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방문을 닫아 버렸다. 그런 다음, 그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그 소리도 이내 잠잠해졌다.

장 노인은 밤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다. 큰 딸 앞에서 늘 조심해 오다가 버럭 소리를 질러 집안 분위기를 흐려놓은 것도 그렇고, 꿈속에서 변신한 가자미가 어머니의 생사조차 모르는 자신을 불효자로 몰아붙이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밥상에는 어느 때와 달리 별난 음식들이 올라왔다.

“아버지! 오늘이 김 서방 생일이라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가자미 미역국이에요.”

“뭘? 가자미?”

장 노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반문했다.

“네.”

국그릇을 내려다보던 장 노인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그 것을 본 큰 딸이 당황하며 물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

“왜 그러시냐구요?”

“아니다. 가자미의 눈물이야.”

“네?”



김동영 방송작가 · 시인
한맥문학 신인상(시 부문) 당선으로 등단 후 단편 '정소리 울릴 때'로 방송작가 활동 시작. 라디오 연속극 · TV드라마 다수.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역임,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과 한맥문화회 이사 등으로 활동 중. 저서로는 장편소설 '현태탄 너머 슬픔이' '하버드 하버드 하버드' 등 다수

오래 오래 살아라, DMZ야




돌이켜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요. 베를린장벽 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이라지만, 서로 쳐다보지 않게 되면 각자가 더욱 굳건해진다고 생각했다니 그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패전 이후 분단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난민 수가 1960년까지 2백53만1천5백40명에 다다랐고, 1961년 베를린장벽이 세워질 때만 해도 한 해 2십만7천26명에 달하던 것이 장벽 건설 이후 1962년에는 2만1천3백5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고 코믹한 일이지만, 한 시대를 온통 물들여버린 냉전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높고 두터운 장벽을 세웠던 것이지요.

1989년,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어뜨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전파를 타게 될 때까지 베를린장벽은 꼬박 스물 아홉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꽃답지만, 소통과 흐름과 교류가 단절된 시간으로는 너무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죽음을 끝으로 역사는 냉전시대의 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서울올림픽미술관에서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베를린에서 DMZ까지'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몇 개의 소전시로 구성된 이 전시에는 특히 '베를린장벽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세계의 유명 작가들이 역사에 대한 기억과 자유, 평화에 대한 염원을 베를린장벽의 파편 위에 남긴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1991년 런던에서부터 2004년 제네바의 UN본부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순회전을 가졌던 전시입니다. 이탈리아의 카를라 아카르디가 보여준 '노랑과 자주'는 이 그림이 베를린장벽 위에 그려졌다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생기가 넘쳐흐릅니다. 스페인 작가인 에두아르도 칠리다의 '주비아'에는 두 곳을 이어주는 다리가 보이는데, 마치 오래 전부터 베를린장벽 속에 그것이 숨어있었던 것처럼 스며나오듯 표현해낸 재치가 압권입니다. 온통 굵직한 상처 위로 붉은 색이 흐르는 베르나르 페이지의 '붉은 장벽 조각'은

조각'은 마음의 상흔처럼 눈에 밟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며 다시는 냉전의 비극이 없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전의 공식적인 종료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굳건한 벽이 엄존합니다. 첨예한 대립과 지극한 평화가 공존하는 곳, 비무장지대, 바로 DMZ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본래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조차 퇴색해가지만, 여전히 참 거대한 장막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베를린장벽이 겨우 40cm의 두께였던 데 비하자면, 우리의 DMZ는 휴전선 위 아래로 2km씩, 무려 4km에 달합니다. 그러나 자그마치 53년의 세월 동안 이 육중한 크기의 경계선이 안팎으로 꽉 막힌 벽으로만 존재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동안 지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요함으로 풀과 나무를, 물과 바람을, 들짐승과 새를 키웠습니다. 기꺼이 이 신산한 대지의 어머니가 되어 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통일이 온다면, 언젠가 DMZ의 의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베를린 최고의 부동산값을 자랑하는 부지로 변해버린 베를린장벽처럼 그저 와르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53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DMZ는 그 이름을 바꾼 후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몇 조각의 예술품이 아닌, 그 풍성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끝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극한의 대립 속에서도 자연은 그 생명을 키웠으니, 아웅다웅 다투지 말아라, 나는 늘 그저 푸르렀을 뿐이다, 역사를 기억하되 어머니처럼 품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세세토록 준엄하게 일깨워주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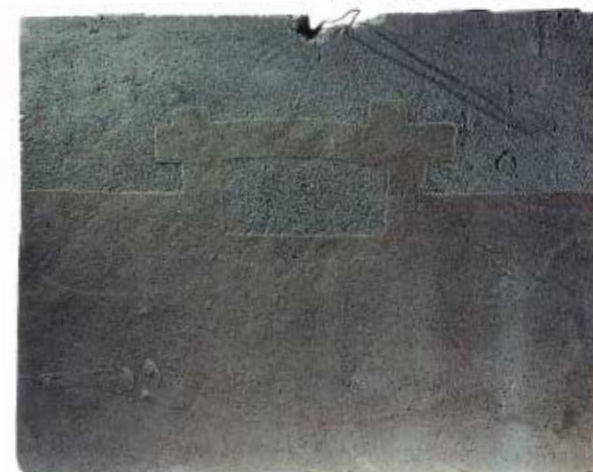
* '베를린에서 DMZ까지'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에서도 전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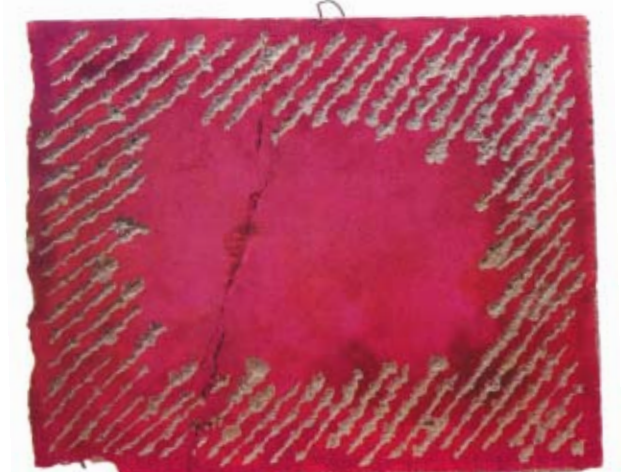
항목주 미술평론가 ·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삶과 자연과 예술은 본래 편이를 한소리라고 생각하며 그들 간의 거리를 좁히는 일에 작은 힘이 되고 싶다는 그녀는 세대가 더 바뀌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남아 있을 때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반문한다



▲ 카를라 아카르디(이탈리아), <노랑과 자주>, 1990, 콘크리트 베를린장벽 원석 파편 위에 다양한 재료, 100×120cm, 실베스트르 베르제 컬렉션 © Photo Peter Schalchli - SVO Art, France, 2005



▲ 에두아르도 칠리다(스페인), <주비아>, 1989, 콘크리트 베를린장벽 원석 파편 위에 다양한 재료, 100×120cm, 실베스트르 베르제 컬렉션 © Photo Peter Schalchli - SVO Art, France, 2005



▲ 베르나르 페이지(프랑스), <붉은 장벽 조각>, 1990, 콘크리트 베를린장벽 원석 파편 위에 다양한 재료, 100×120cm, 실베스트르 베르제 컬렉션 © Photo Peter Schalchli - SVO Art, France, 2005

생활 속에서 여성들이 '통일' 을 얘기할 때

멍석 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다 떨듯이

얼마전 평양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여성들이 모여 제2차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02년 금강산에서 있었던 1차 대회 이후 3년만에 다시 만난거죠. 이런 행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자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분 단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인 올해는 정말 어느 해보다 뜻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8·15 민족통일대축전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뜨거운 통일열기를 함께 했고 서대문형무소와 민속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몸으로 느끼는 통일기행을 진행했습니다. 돌배기부터 초등학생, 청소년,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는데 돌아오는 버스에서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느낀 점이 너무 많았고, 이제부터 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8월말에는 부산민주공원과 공동으로 통일교육 교사직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3일 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뜨거웠던 여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시작하면서 참가한 선생님들이 자신이 이번 연수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목표를 카드에 쓰고 발표를 했는데 “통일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워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내 자신부터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싶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에 앞서 우선 나부터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잘 안 선다는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시더군요.

통일교육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하고 통일교육의 방법과 사례로 짝꿍했던 교육을 마치면서 북의 생활에 대해 많이 알게 되니 가깝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특히 6·15 공동선언의 중요성과 계속 실천되고 있는 생명력을 느끼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통일교육을 꼭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달라진 선생님들의 평가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물려주고 싶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통일은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통일은 관심 밖의 일입니다. 사실은 통일 이외에 다른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한 편이죠.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어도 내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을 거의 느낄 수 없고, 언론에서 핵문제나 전쟁의 위험을 이야기해도 남자들, 정치인들의 문제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 아주 어렵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과연 통일을 바라지 않을까요?

저희 단체의 통일교육강사단이 ‘찾아가는 통일교육’ ‘행복한 통일이야기’ 교육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이런 생각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금으로 엄청난 무기 구입비를 비롯한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치르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1대면 지방병원 4만동을, 잠수함 1척이면 주택 4만호를 지을 수 있다는 자료를 보면 분단비용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지요.

또 사실 실감은 안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만하면 너무 끔찍하고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닌 휴전중이라는 사실을 잘 실감 못하다가도 핵문제가 불거지면 이라크 전쟁이 떠오르고,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위험이 아닌 평화를 물려주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북 여성과 같은 점이 많은 게 되레 신기했어요

조금만 이야기하다보면 여성들은 분명 통일을 바라고 꿈꿉니다.

여성들과 통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은 통일을 할 상대인 북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일이 꼭 되기는 되어야 하는데 함께 해야할 상대가 영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이미 남과 북은 60년을 다르게 살아



“통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됨(통일)이 아닐까요?”

왔습니다. 2002년 남북여성대회에서 많은 북측의 여성들과 만났을 때 같은 점이 많은 게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 결혼은 했는지, 아이들은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가 궁금한 것들을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점도 많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나 남편에 대한 생각 등 비슷한 점도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지금 단계의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북측 사람들은 무슨 고민을 하고 결혼생활, 군대가는 것, 아이키우는 것, 자녀의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족이나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알면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느끼고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너희는 틀렸어”가 아니라 “서로 이런 점은 다르구나,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잣대로 우리 눈으로 재단하고 보기 시작하면 북측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고, 이견 북측도 마찬가지로 일겁니다. 말로 하는 통일이 아니라 실제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에 대해 있는대로 인정하는 자세,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육방식에서도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참여식의 교육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에 사진을 전시하거나 노래나 영화, 퀴즈나 문장퍼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할 때 더 유쾌한 교육이 됩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문장퍼즐은 아주 반응이 좋은 인기 있는 교육방법중의 하나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실천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만들어갈 통일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또 여성들은 명석 퍼 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수다를 떨듯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른 모임 전에 회의 전에 10분, 짧은 이야기 나누기도 아주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또 방송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방송에서 본 이야기하기를 또 좋아하거든요. 여성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기도 하지만요. 얼마전 보니 문화방송의 ‘느낌표’에서 남북알아맞추기 대회에 이어 통일시리즈 3탄을 시작하더군요. 이산가족 한 분이 자기가 기억하는 북의 요리에 대한 맛과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참가한 많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시식하는 ‘통일요리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또 교육방송에서 하는 ‘코리아, 코리아’, 영화를 통해 알아보는 북의 생활이나 초등학교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통일종이 땡땡땡” 코너들은 아주 재미있고 서로 친숙하고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쉽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송인 듯합니다. 많이 보고 많이 접하면 익숙해지기가 쉽지요. 이런 방송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주도록 우리가 요구해야겠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행사’도 좋은 방식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통일기행과 같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몸으로 느끼는 행사’들도 정말 여성들에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 교육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요. 선생님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 교육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강당과 아파트 마당을 돌면서 진행되는 ‘한여름밤의 통일영화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민 걷기대회’ 등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한 행사들은 여성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고 행사진행 등에 여성들이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여성들과 남성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됨(통일)이 아닐까요. ☺

강영경 부산여성회 부회장
8·15축전 환영만찬에서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자주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통일의 나라로’라는 건배사를 들으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기뻐다며 내년 회원들과 같이 금강산에 가기로 하고 모은 돈이 불어가는 걸 볼 때 통일이 ‘일상’으로 느껴진다고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2 2005. **10**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 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기간
2005.10.24~2006.12.31

강북 우체국 승인
제40150호

받는 사람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통일교육소식' 담당자(앞)

□ 1 □ 4 □ 2 □ - □ 7 □ 1 □ 5



본 통일교육소식^{UEM}은 여러분의 마당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타를 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매의 빛과 거름이 되겠습니다

본 2호 코너 중 가장 좋았던 칼럼이나 기사가 있다면? 칼럼(&기사) 제목과 함께 편하게 써주세요

Blank lines for reader feedback.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은 '통일' 과 '평화' 를 염원하는 우리네 맘과 정성을 담은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질타를 바랍니다

- 인물(화제의 인물 · 역사적 인물 · 주변의 숨은 인물 등)
· 사건(국내외 화제 · 통일정책 관련 기사의 심층취재 등)
· 통일교육 현장(관련기관 · 학교현장 · 우리반 통일이야기 · 내가 본 우리 아이들의 통일관 등)
· 새터민들의 '나도 한 마디'
· 문화(문학 · 공연 ·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Blank lines for reader feedback.

통일, 북한소식, 북한 생활 · 문화 등 궁금한 사항은? (통일 Q&A코너)

Blank lines for Q&A.

신설했으면 하는 코너나 장르가 있다면?

Blank lines for Q&A.

통일교육소식

UNIFICATION EDUCATION MAGAZINE

VOL. 2 2005. 10

엽서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200자 서평



“꿈은 남과 북이 따로 없어요”

나는 통일복서 최현미 | 이지원 지음
서울문화사 2005년 7월, 184쪽, 8천5백원
한국판 밀리언달러 베이비, 현미의 꿈!! 북한 김철주사범대학체육단에서 인정받은 권투 꿈나무. 지난해 7월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함께 탈북한 현미와 현미네 가족 이야기가 과장 없

이 잔잔하게 전편에 흐른다. 현미의 남한 적응모습보다 북한에서부터 북서 꿈을 키워온 현미의 곳곳한 남한 일상 이야기와 현미의 시선으로 보는 북한 실생활은 읽는 이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전달되어 온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동화(현재 현미 양은 서울 노원구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는 북한의 아이들의 학교생활, 그리고 북한 아이들이 나름대로 저마다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과 노력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담아내고 있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예요

어린이 북한 바로알기 | 도희윤 지음
청솔 2005년 6월, 183쪽, 8천5백원

우리와 하나인 북한에 대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알아야만 '통일내일'은 밝은 법. 우리 아이들의 '북한 알기' 수준이 그저 빨간국의 나라 정도라면 안다면, 북한 사회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어린이 북한 바로알기'는 그래서 눈에 띈다. 현재 북한의 수도 평양 전경과 북한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 내용은 물론 뿐만이 후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북한의 생활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국기에서부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모습과 어린이들의 놀이문화에까지 최초로 공개되는 북한 사진은 현재의 북한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 북한은 정말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임을 보여준다.

남북·통일 신간안내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정리

▶ 북한 영화의 역사적 이해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 북한영화의 역사를 시간흐름에 따라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북한 문학 · 예술의 정의와 갈래를 따라 영화사업의 역사적 시기를 구분,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영화의 실증적 현상과 역사적 전개과정을 문화사회학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민병욱 지음, 역락 2005년 8월, 1만원)

27가지 코드로 북한내면 보기

▶ 북한 이야기
이 책은 북한 사람들 삶의 내면 이야기를 그들에게로부터 직접 듣는 포맷으로 엮어져 있다. 깊숙한 그들의 삶 이야기를 과연 누구에게 이렇듯 상세히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오늘의 북한내면 보기를 27가지 코드로 다가간다. (김상수 지음, 여백미디어 2005년 8월, 9천5백원)

이념적 토대와 개념적 근거로 분석

▶ 남북한 통합 도덕과교육론
통일 시대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도덕과교육의 통합 방안을 모색한 책. 남북한 도덕과교육 통합을 위한 이념

적 토대와 개념적 근거를 살펴보고 있다. 남북한의 도덕 교과서를 교육 과정 · 교육 목표 · 구조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실제 분석에 치중하였다. (병용권 외 지음, 부산대 출판부 2005년 4월, 1만2천원)

남북한 무역구조의 객관적 서술

▶ 남북한 무역구조 비교론
해방이후 2000년까지 남북한 무역구조의 전개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남북의 시기별 · 지역별 무역통계자료를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무역구조 변화양상을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논의에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정만식 지음, 두남 2005년 4월, 3만원)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재구성

▶ 왕후심청
효를 주제로 하는 고전소설 '심청전'을 새롭게 각색하여 재미를 더했다. 지난해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SCAF) 장편부분 그랑프리 수상작이자, 남북이 오랜 시간 공동작업으로 완성시킨 2005년 개봉작 애니메이션 '왕후심청'을 만화책으로 재구성했다. (편집부 냄, 흥진P&M 2005년 8월, 8천5백원)

오늘의 북한일상 담은 동화

▶ 짱구의 북한 수학여행기
북한 이야기를 담은 창작동화. 저자 임홍균은 탈북작가로 그가 살아온 북한세계를 짱구라는 인물이 수학여행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북한 일상'을 엿보도록 꾸몄다. 개성 평양 함흥 청진의 곳곳을 살펴며 북한의 문화와 사회를 둘러본다. (임호균 지음, 신서&생명의 숲 2005년 6월, 9천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 3종



통일교육원에서 통일 · 북한과 관련하여 흥미가 있거나 쟁점이 될 만한 주제를 선정,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 05~07이 새로 나왔다.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이해', '남북한의 역사인식비교' 등 세 권이 그것인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위 책의 전문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매품.



통일의 물결이 한반도 분단의 벽을 깨고 남과 북을 '하나' 로 만드는 그 날!

우리 민족이 다시 어우러져 춤추는 그 날을 위해 통일교육원은
'통일열망'의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다

